발간등록번호
2026-KIHF-042

2026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아이돌봄서비스

2026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아이돌봄서비스



2026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아이돌봄서비스

2026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아이돌봄서비스

차례

대상

이용자

04 **김시원** · 겨울에 일어난 기적

아이돌봄사

09 **박성진** · 따뜻한 등대이자 길을 잃지 않게 돕는 나침반 아이돌봄사

사업담당자

13 **하윤성** · 감시자가 아닌 동행자로 기억해 주세요

우수상

이용자

18 **김소라** · 아이돌봄을 넘어 엄마돌봄까지

24 **구송이** · 암 투병의 시간을 버티게 한 힘, 제2의 가족 돌돌선생님

28 **오든눈** · 낯선 마음에 슬픈 당신에게

아이돌봄사

34 **김태연** · 아이와 어린 엄마를 응원하며

38 **박효선** · 나의 행복한 삶 속에 따뜻한 동행, 아이돌봄활동

43 **권정술** · 아이돌봄으로 행복한 선생님

사업담당자

48 **여선주**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2주의 기적,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마을의 손길

53 **정연실** · 가장 따뜻한 매칭, 현장에서 피어난 보람

57 **송지연** · 돌보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돌봄



장려상

이용자

62 **소유미** · 벼랑 끝에서 만난 천사

68 **임다미** · 꺄르르 선생님이 데려온 봄

72 **안화영** · '귀한 천사'들을 맞이하기까지 기다렸던 시간

76 **이유진** · 아이마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법이에요

80 **김두리** · 우리 집의 여섯 번째 가족, 아이돌봄 선생님께

85 **조지연** ·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다시 찾은 일상

89 **임혜민** · 육아는 버티는 일이 아니다

92 **문수경** ·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아이돌봄사

96 **김강미** · 너와 나 함께 하는 성장이야기

99 **박연단** · 나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가족

102 **김선희** · 장애를 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

107 **성희남** · 제가 선생님을 지켜줄게요

111 **정음미** · 내 이름은 '아줌마'가 아니라 '아이돌봄사'랍니다

114 **황명주** · 현모양처에서 아이돌보미 그리고 아이돌봄사가 되기까지

사업담당자

120 **윤지은** · 따뜻한 연결, 사례관리자가 만난 아이돌봄의 가치

124 **김미경** · 우리의 돌봄꽃

128 **윤희진** · 초보 종사자의 모니터에 봄이 피었습니다

132 **박영미** · 돌봄을 잇는 사람, 그 사이에서 피어난 성장

대상

이용자 우수사례

겨울에 일어난 기적

김 시 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아이돌봄센터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나에게 묻는다면 단연코 겨울이다. 어릴 적 겨울이 되면 엄마는 나와 형에게 퇴근 중인 아빠를 지하철역까지 마중 가게 했다. 추운 날씨에 쓸쓸하게 혼자 걸어오시는 아빠를 위로하려는 나름의 지혜였던 것 같다. 아빠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맡았던 찬바람 냄새, 붕어빵 냄새가 겨울만 되면 코끝을 스쳐 마음이 설렌다.

하지만 지난 겨울은 나에게 달랐다. 겨울 바람 냄새를 맡아도 설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겨울이었다.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임신중독증에 걸렸고 그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쌍둥이 출산은 듣던 대로 위험한 일이었다. 아내는 쌍둥이 남매를 임신하고 있던 중에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출산 후에도 몸이 아팠다. 나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혈압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혈관이 많은 기관인 신장, 심장, 눈이 가장 악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아내는 출산 후에도 신장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약을 먹었다. 눈에 점점 물이 차서 망막박리라는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게 됐다. 아내는 처음에 사물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 모든 직선이 휘어 보인다고 했다.

이제 막 태어난 쌍둥이 아기들을 돌보던 아내는 시야가 불편하고 고혈압 영향인지 팔을 들어올리기도 힘들어 괴로워했다. 우리는 양가 어머니께서 안 계신 상황에서 결혼한 터라 장인 어른께서 손을 보태주셨지만 곧 허리 수술을 하시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졌다.

집안에 아이를 돌봐줄 어른이 안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안타까운 일이었다. 사소한 것이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쌍둥이 아빠로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도 지혜가 부족했다. 아픈 아내를 대신하여 많은 것들을 전담하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하루하루가 힘에 부쳤다.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긴박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육아였다. 아픈 아내에게 미안해서 힘든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육아가 군복무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아기들 기저귀가 담긴 봉투를 버리고 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기도했다.

"엄마, 집사람이 많이 아파. 도와줘.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 잘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 엄마… 우리 좀 도와줘."

팔랑팔랑 내리는 차가운 눈이 얼굴에 쨍하며 내려앉는 게 엄마가 알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말 엄마가 대답한 것일까, 우리는 유모차 산책 시간에 아이들을 귀여워해 주는 이웃을 마주쳤고 그분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됐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나는 아이돌봄센터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분은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서비스 이용법을 알려주었다. 내 사정을 듣고 정기 서비스를

신청해주었고, 대기 중인 기간 동안 단기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나는 사정이 워낙 급했던 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참 많은 분을 만났다. 그렇게 아이돌봄서비스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나는 세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전문적인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했다. 우리 아이들은 조산아로 태어났고, 몸무게가 일반 신생아들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아들은 입이 짧아 애를 먹었다. 우리 아이들을 가장 오랜 시간 돌봐주신 분은 유명 연예인과 이름이 같은, 에너지와 생기가 넘치는 선생님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아들이 분유를 거부할 때 채소 퓨레나 요거트에 분유가루를 섞어 먹였다. 그리고 이유식을 직접 만들지 말고 시판 이유식을 시도해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이들이 시판 이유식 중 일부가 입맛에 맞는지 곧잘 먹었다. 또 선생님은 특유의 노하우로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항상 식사를 끝까지 마치게 해주셨다. 아이들은 먹는 것이 전부라며,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기를 쓰고 먹여야 한다고 말하는 선생님의 눈빛에서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덕에 우리 아이들은 여린 신생아 시기를 무사히 잘 지내고 무럭무럭 자랐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었더라면 초보 부모인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잘 먹이고, 이만큼 건강하게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아이 아빠인 내가 어깨 너머로 많은 것을 배웠다. 아내가 임신한 동안 책이나 동영상으로 육아법을 나름대로 공부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글로 배운' 육아법이었다. 많은 면에서 서툰 나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생생한 교육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나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 덕에 아이들 손발톱을 깎는 방법부터 아이들이 용변을 보았을 때 쉽게 치우는 방법, 낮잠 잘 재우는 방법까지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다. 아내 역시 육아 전문가들에게 남편이 많이 배우고 트레이닝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아내가 편안해하는 것이 눈에 보여 아이돌보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동안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아내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셨다. 어린 아기를 안쓰럽게 여겨 진심을 다해 친할머니처럼, 이모처럼 따뜻하게 돌봐주셔서 아내가 안심하고 쉴 수 있었다.

아이돌봄 시간에 아내는 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걷기운동을 꾸준히 하여 가장 큰 문제였던 혈압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혈압약을 최저용량으로 처방받았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눈도 많이 좋아져서 불편함 없이 보인다고 한다.

아내는 본인이 건강을 회복한 것의 이등공신은 남편이고, 일등공신은 아이돌봄서비스라고 웃으며 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 아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회복에 전념할 시간과 에너지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비로소 아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편안하게 보고, 예쁜 우리 아기들의 얼굴을 온전하게 볼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

한번은 아내가 걷기운동을 나간 사이에 아이돌봄사 선생님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분은 우리집 바로 건너편 사거리에 산다고 하셨다. 두 딸을 키우고 손주 하나를 봐주었으나 얼마 전 딸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적

적하다고 하셨다.

우리 동네, 집 바로 앞에 이렇게 사랑과 전문성을 지닌 좋은 분, 아이를 잘 돌봐주실 분이 계셨다니!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같은 귀여운 아가들을 보며 힘이 난다고 하신다! 이렇게 딱 맞는 수요와 공급이 있어도 아이돌봄서비스라는 플랫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연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간곡한 필요를 파악하고 연결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긴요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된장찌개에 비유하고 싶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된장찌개 말이다. 그 안에는 생생한 제철 재료, 삶의 경험과 애정이 가득 들어 있다. 먹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엄마표 된장찌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학창시절과 총각시절에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고 "엄마,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던 때와 일맥상통한다. 엄마도 된장찌개를 끓여 내게 먹이며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난다. 슴슴한 맛으로 일상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할수록 건강해지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와 꼭 닮았다.

올해 겨울이 오면 나는 다시 좋아하는 계절을 맞아 무척 설렐 것이라고 믿는다. 내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한 추억 덕에 내가 찬바람 냄새를 좋아하게 되었듯, 내 아이들은 어떤 행복한 기억으로 차가운 겨울을 사랑하게 될지 많이 궁금하고 기대된다.

아내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가족의 설렘을 되찾아준 아이돌봄서비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대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따뜻한 등대이자 길을 잃지 않게 돕는 나침반 아이돌봄사

박 성 진 | 경기도 안양시아이돌봄센터

내가 14년차 아이돌봄사로 가장 애틋하게 품었던 다섯 살 꼬마가 초등학교 4학년 사춘기 소녀가 되었다. 돌봄활동 중 만난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가슴을 가장 아리고도 따뜻하게 만든 아이는 ○○였다. 천진난만하게 내 손을 꼭 잡던 ○○와 7년 동안 피어난 깊은 돌봄 정(情) 이야기를 시작한다.

처음 만났을 때 ○○는 새벽에 출근하는 아빠를 따라 일어나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눈물을 흘리던 아이였다. 그 모습을 본 나 역시 눈가가 촉촉해지고 코끝이 찡해졌다. ○○를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에도 ○○를 품에 안고 달래며 다짐했던 '나 편하자고 중단하지는 말자'는 약속은 돌봄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되었다.

이제는 웃는 모습으로 새벽부터 나를 기다리는 ○○. 초등학교 4학년, 어느덧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감정이 오르내리는 사춘기의 문턱에 서 있지만 ○○가 밝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또래의 모범이 되고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보람

을 느낀다.

맞벌이 자녀를 둔 내가 시작한 아이돌봄사 일이 이제는 다섯 명의 친손주와 더불어 ○○라는 '여섯 번째 손주'를 얻게 해준 소중한 천직이 되었다.

사춘기가 되어 요즘은 반항도 하지만 가끔 ○○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며 웃곤 한다.

"내가 어릴 때 엘리베이터에서 엄마라고 불렀었는데. 기억나세요?"

○○는 가만히 있다가도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이 타면 나를 "엄마, 엄마!" 하고 불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나는 ○○에게 조용히 일러주었다.

"우리 ○○,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구나.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는 조금 참고 우리 둘이 있을 때 마음껏 부르자."

그때는 엄마 품이 그리워 철없이 굴던 아이가 이제는 "그때 내가 참 철이 없었죠?"라며 쑥스러운 듯 웃어 보인다.

○○의 등교길에는 긴 계단이 있었다. 1학년 때에는 내 손을 꼭 잡고 의지해서 내려오게 했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자 "이제 2학년이니까 손 놓고 혼자 걸어보자!"고 하니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못 걷겠다고 떼를 썼다.

그때의 그 작은 손, 내 손을 놓치지 않으려 꽉 쥐던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내 손바닥에 남아 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는 말처럼 혈육은 아니지만 ○○가 내게 의지하던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오자 ○○가 진지하게 물었다.

"생리를 하면 아파요? 코피 나오는 것처럼 막고 있어야 해요? 우리 아빠도 이런 걸 알고 있나요?"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지만, 나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생리가 성장의 과정임을 알려주고, 아빠와도 공유해야 할 소중한 변화임을 이야기해주었다.

또 어느 날은 ○○가 이런 질문을 했다.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암에 걸리게 될까요?"

고학년이 되며 ○○가 하는 질문은 때로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양치질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아빠가 "입속 병균이 위로 들어가 위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였다.

○○는 겁먹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위암에 걸리는 건가요?"

나는 아이와 함께 인터넷을 검색하며 위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건강하게 관리하면 괜찮다는 확신을 주어 불안감을 달래주었다. 엄마의 부재가 아이의 건강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가진 동화구연, 복화술 인형놀이, 마술, 스피치 상담지도사 자격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학교에서 "목소리가 좋고 발표를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온 날이면 ○○는 내게 달려와 자랑했다.

"돌봄 선생님이 재주가 많아서 나한테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나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명랑한 ○○가 자랑스럽다.

○○ 아버지도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씀해주셨다.

"○○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센 딸이었어요. 3살 때 놀이터에서 떼를 쓰며 울음을 그치지 않아 주위에서 달래줘도 말을 듣지 않던 아이였는데, 돌봄 선생님 덕분에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5살 전까지 돌봄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어 불안해하던 ○○도 4학년이 될

때까지 곁을 지켜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넨다. 가끔 내 안색을 살피며 "선생님이 힘드실까 봐 걱정돼요."라고 말하는 ○○를 보면, 사춘기의 반항마저도 대견한 성장통으로 느껴진다.

어느 날 ○○가 물었다.

"중학생이 되어 돌봄이 끝나면 이제 돌봄 선생님과 못 만나게 되나요?"

"돌봄 시간이 끝나도 선생님은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전화도 할 수 있고, 우리 인연은 계속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가방을 메고 가는 뒷모습이 또래보다 왜소해 보일 때도 있지만 ○○의 정신력은 누구보다 단단하다.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14년, 그리고 ○○와 함께 한 긴 시간은 내가 단순히 아이돌봄 일을 한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숭고한 일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사춘기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에게 나는 어둠을 밝히는 등대이자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나침반이 되고 싶다. 낳은 정보다 더 진한 기른 정으로 나는 오늘도 '여섯 번째 손주'를 만나러 행복한 발걸음을 옮긴다.

마지막으로 14년차 아이돌봄사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며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안양시 아이돌봄센터 담당자분들이 돌봄활동의 어려움과 고민을 상담해주시고 늘 친절하게 대해주신 덕이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대상

사업담당자 우수사례

감시자가 아닌 동행자로 기억해주세요

하윤성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아이돌봄센터

"선생님, 저 감시하러 오신 거죠?"

현장 모니터링을 나갈 때면 종종 듣는 말이다. 웃으며 고개를 젓지만 한동안 그 말이 마음속에 남는다. 나는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자라고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걷는 동행자로 기억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시작은 입사 후 아이돌봄 사례관리자로서 처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맡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으로 수십 명의 아이돌봄사 선생님들 앞에 서게 된 날, 나는 '아동학대'라는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께 또 하나의 딱딱한 이론 교육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면접 이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양복과 넥타이를 꺼내 들며 거기에 담



긴 의미를 생각했다. 그리고 교육 당일,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을 뵙기 위해 면접 이후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제게 넥타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이 넥타이는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조금은 낯간지러운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어 보였고, 누군가는 쑥스럽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 순간 선생님들과 나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교육은 훨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선생님들 역시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셨고, 질문과 의견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다음 교육이 진행된 날은 마침 화이트데이였다. 거리마다 사탕을 파는 모습을 보며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자는 생각이 들어 대왕 막대사탕을 구매해 교육장으로 향했다.

"오늘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웃음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아동학대 관련 사례와 퀴즈를 함께 나누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정답을 맞힌 선생님께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선생님들께 작은 설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며 한쪽 무릎을 꿇고 숨겨두었던 사탕을 전달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단순한 쇼맨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작은 웃음과 따뜻한 감정 하나하나가 쌓여 돌봄 현장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아이돌봄센터와 아이돌봄사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 형성만으로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도 궁금해하셨다.

"이 상황도 학대에 해당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나는 보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위해 아동학대 판례집과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실제 판례를 직접 찾아 교육 자료에 반영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아동학대 자문을 구하고 동료들과 판례를 분석하며 올바른 대처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신고 이후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동학대 특례법과 시행령을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법률구조공단에도 직접 질의하며 실무적 이해를 넓혀갔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 때, 교육청의 대응 사례와 방법까지 직접 찾아보며 '아이돌봄사 선생님들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졌다.

나는 즉시 신고를 진행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하는 아이돌봄센터 담당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늘 균형과 원칙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사례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쌓아온 전문성은 현장 모니터링에서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모니터링은 단순히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사 선생님과 서비스 이용자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배우고 느끼며 호흡하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한 이용가정을 방문했을 때였다. 돌봄사 선생님은 아이와 다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었고, 아이는 내게도 다가와 자신이 만든 블록 장난감을 신나게 보여주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보는 사이 모니터링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다.

이후 활동을 마친 선생님께 현장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는 없는지 별도로 연락을 드렸다.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는 조심스러워 말을 아끼셨던 선생님은 그제야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 아이의 발달이 또래보다 다소 느려 돌봄 과정이 쉽지 않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이용자의 상황이 안타까워 어떻게든 더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이용자가 가정에 있는 시간에 따로 방문을 드렸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개인적인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다. 이용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야간근무까지 이어가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엄격하게 대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출근 전 이른 새벽마다 아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직접 음식과 간식을 준비해 두고, 아이돌봄사 선생님께 부탁하는 모습에서 아이를 향한 애정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안내했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연계를 진행했다. 후원물품·문화 프로그램·자녀 언어 치료·양육 코칭 등 여러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후 다시 방문했을 때 이용자는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나를 맞이하며 말했다.

"훈육 방식도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아이돌봄사 선생님 역시 이용자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돌봄활동에 더욱 힘이 난다고 이야기해주셨다. 아이돌봄 사례관리란 아이와 돌봄사, 그리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살피는 일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면 큰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판단과 조치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놓쳐버린 작은 신호 하나가 아이에게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웃음과 "덕분에 안심이 돼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이다. 이러한 말들이 사례관리자로서의 책임과 방향을 되새기게 한다.

지금도 가끔 선생님들께 이런 농담을 듣는다.

"선생님, 저 감시하러 오신 거죠?"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감시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걷는 동행자로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원주시 아이돌봄센터에서 아이들과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우수상

이용자 우수사례

아이돌봄을 넘어 엄마돌봄까지

김소라 | 경기도 화성시아이돌봄센터

나는 아이 넷을 키우는 엄마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다둥이 엄마로서의 삶은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알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과 같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불확실과 불가능, 불안함이 단골손님처럼 찾아오면서 누가 먼저 커지나 서로 경쟁까지 하는 것 같았다.

첫째 아이가 두 돌이 지날 무렵, 무려 세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 기간 동안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첫째를 키워봤으니 둘째, 셋째, 넷째를 키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자신만만했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고 보니 현실은 혼란과 난리법석의 연속이었다. 동시에 우는 세 아이를 안고 달래는 일, 각기 다른 시간에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이 시기 육아를 돕던 친정 엄마께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문제는 우리집에 이제 갓 네 살이 된 어린 첫째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 집안에 아이들이 있었다. 각자의 요구를 각자의 방법으로 표출하는 네 명의 아이들 앞에서는 육아 경력자들도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그때마다 주문처럼 외우며 스스로 위로하던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 바로 '00일만 지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쌍둥이를 임신하고 여러 육아정보를 수집하던 중에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문에 내게 아이들의 100일은 '희망'이자 '살 길'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던 탓에 거의 기억조차 나지 않는 100일의 시간이 어떻게든 지나갔다. 100일이 지나자마자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에 연락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의 절박함을 이해해주신 센터 측에서 아주 신속하게 선생님을 배정해주셨다. 면접날 뵈었던 선생님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아이들아, 만나서 반가워. 많이 사랑하고 예뻐해줄게."

그렇게 시작된 신 선생님의 돌봄은 정말 탁월하고 전문적이었다. 전국 출산율 1위를 자랑하는 동탄이라 돌봄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신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큰 복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이른둥이로 태어나 또래보다 많이 작았고, 그래서인지 너무 힘들게 분유를 먹었다. 잠투정도 심한 편이어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울다 자기 일쑤였다. 엄마인 나도 예민한 아이들을 돌보다가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아이들이 빨리 먹지 못해 식어버린 분유병 세 개를 몇 번이고 다시 데워 먹여주셨다. 그러고는 "다 먹어야지. 그래야 얼른 쑥쑥 크지. 옳지, 잘한다~!" 하시면서 내게는 늘 들어가서 빨리 쉬라고 말씀하셨다. 세 아이를 한 침대에 눕히고 재우면 나는 졸기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은 엄마인 나도 편히 잘 수 있도록 순식간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나가시곤 했다.

겪어보기 전까지는 나도 알지 못했기에, 쌍둥이를 낳으면 한번에 다 끝냈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철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세쌍둥이를, 거기에 첫째까지 네 명의 아이를 키우게 되니 매일의 삶이 정말 전쟁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이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육아를 하다 보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수가 없다. 그저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게 미션일 뿐이다. 일 중심적이고 계획적인 나는 이 상황들이 못 견디게 힘들었다. 엄마로서 아이들을 그저 생존만 시키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일련의 상황들로 인한 무력감, 그 와중에 갑자기 동생이 셋이나 생겨 큰 혼란에 빠진 첫째 아이를 보며 밀려드는 미안함,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드는 불안감. 그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선생님께 속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마치 친정 엄마처럼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셨다.

"자식 하나도 힘든데 세상에 넷이나 이렇게 건강하게 낳았으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해요."

"아유, 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해요.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예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다 잘 될 거예요. 애들 벌써 이만큼 큰 거 보세요. 이제 점점 더 쉬워질 날만 남았어요."

"애들이 다 이렇게 예쁘기가 쉽지 않은데, 인물들이 대단하네. 이 집은 진짜 복된 집이에요."

선생님께선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말씀들을 전부 내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래서 또다시 우울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꺼내어 곱씹고 또 곱씹으며 힘과 위로를 받는다. 선생님의 정식 호칭은 '아이돌봄사'이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아이돌봄사'면서 '엄마돌봄사'라고 불러드려야 할 만큼 선생님은 아이들의 돌봄은 물론이고 엄마인 나도 세심하게 돌봐주신다.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 10개월 가까이 되어가는데, 선생님이 오시는 시간만 되면 "아, 됐다!" 하고 안심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베이비룸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선생님을 맞이한다. 그만큼 선생님은 우리 집 최고 인기스타다.

더 감사한 사실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아이돌봄, 그리고 엄마돌봄서비스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남편은 주말에 근무하기 때문에 세쌍둥이가 태어난 후부터 주말은 평일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들었다. 주말을 책임져주시는 박 선생님은 그 빈자리를 거뜬히 채워주시고도 남을 만큼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이다. 아이들을 대하는 목소리와 손길에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득 담아내신다. 포대기가 아기 정서에 좋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번갈아 업어주시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반응해주시면서 아이들을 까르르 웃게 해주시고, 행여 첫째가 섭섭할까 봐 언제나 동생들 앞에서 첫째를 칭찬해주시고, 옷 하나도 아이들 개성을 고려해 심사숙고하여 골라 입히시고, 아이들이



심하게 울고 보챌 때도 노래 부르며 달래주시고, 육아 고민을 털어놓으면 꼭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보내주시고, 지쳐서 말 한마디 할 힘조차 없는 나를 꼭 웃겨주신다. 아이를 돌보시면서도 잊지 않고 엄마 마음을 돌보시는 세심함이 내겐 늘 감동이었다.

선생님께는 특히 기억나는 감사한 순간들이 있다.

첫번째는 야간 돌봄을 하시면서 "엄마는 아예 문밖으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자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만큼은 단잠 자면 좋겠어요."라고 하셨던 어느 여름밤이었다. 두세 시간마다 세 명의 아이를 계속 수유하고 재우느라 두 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침이 될 때까지 푹 잘 수 있었다. 아이들이 언제 깨고 먹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선생님은 그 기나긴 밤 동안 탁월하고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셨다.

두번째는 아이들의 수면 교육을 할 때였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울고 있는 나를 선생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엄마, 아이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왜 울어요. 엄마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아이 넷 키우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라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뜻하지 않게 다둥이 엄마가 된 내게 아이돌봄서비스는 튼튼한 동아줄과도 같은 존재다. 요즘도 매일 생각한다. 과연 나 혼자였다면 네 명의 아이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다.

이용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누구보다 산전수전을 겪은 내 생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의미는 '아이돌봄이 곧 엄마돌봄'이라는 것이다.

엄마는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흡수한다. 아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가 웃으면 엄마도 웃고, 아이가 사랑받으면 엄마도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특히 나처럼 다둥이를 키우거나, 혹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에게 늘 부족한 양육을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는 엄마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그 자체로 엄마돌봄서비스가 되어준다.

내가 경험한 선생님의 전문적이고 애정어린 돌봄,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꼼꼼한 시스템은 하마터면 우울증과 죄책감, 중압감으로 무너질 뻔했던 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육아 전선에서 언제든 비빌 언덕이 있고,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무기다.

막막함에서 자신감으로, 외로움에서 여유로움으로, 죄책감에서 효능감으로 육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와 엄마 모두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오늘도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낸다.

우수상

이용자 우수사례

암 투병의 시간을 버티게 한 힘, 제2의 가족 돌돌선생님

구송이 | 경상북도 경산시아이돌봄센터

나는 21개월 터울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올해로 직장생활 15년 차, 대학 졸업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 양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기관에 맡기기 싫었기에, 우리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포기한 채 사실상 '강제 딩크'로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이돌봄서비스' 현수막을 보게 됐다.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찾아보고 '이런 게 있었다니! 이 정도 비용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우리도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6년의 딩크 끝에 비로소 우리는 아이를 계획하게 되었고, 지금의 가족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엄마 손이 많이 갈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며, 나는 매일을 헉헉거리며 버텨냈다. 첫째에게 미안하고, 둘째에게도 부족한 엄마라는 생각 속에 하루하루가 무너지듯 흘러갔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복직 후 회사 일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막막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정기 돌봄 선생님이 배정되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가족을 꾸릴 수 있게 해준 '전제 조건'이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임신과 출산이었기에, 어떤 선생님이 오시든 '또 다른 친정엄마이자 이모, 제2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다가가기로 했다. 진심은 어디서나 통할 테니.

나는 1부터 10까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통제적이고 강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기 전부터 전화로 첫째의 낯가림과 둘째의 하루 일과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불안했다. 선생님이 나만큼 아이들한테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선생님께서는 스티커 놀이, 색칠 활동, 동요와 율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시고 단순히 놀이가 아닌 '전문가'의 돌봄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둘째를 포대기로 등에 업고 첫째와 춤을 추며 놀아주시고, 꽃과 자연, 바람을 느끼는 시간을 선물해주셨다. 아이는 금세 선생님과 가까워졌고, 나는 그동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육아에서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단순한 결절로 생각했던 혹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종양의 크기가 커서 대구에서는 수술이 어려웠고, 서울을 오가며 병원을 알아봐야 했다.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치료를 준비하는 동안 매일이 버겁고 무거웠다.

주변에서는 "엄마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지만, 정작 나는 내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양가 부모님께 장기간 아이들을 맡길 수도 없었고, 남편 역시 장기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막막함 그 자체였다.

누가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 했던가. 나의 시간은 결코 착하지 않았다. 오른쪽 반절제 이후 상태가 좋지 않아, 왼쪽까지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게 되어 두 번의 수술 끝에 갑상선 전절제 환자가 되었다. 아이를 안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고,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몸이 됐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전이 검사를 위한 방사선 치료까지 이어지며, 나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까지 감당해야 했다. 특히 방사선 치료는 더 잔인했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오랜 시간 아이들과 격리하여 떨어져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어린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암 진단보다 더 아프게 나를 무너뜨렸다. 그 막막한 시간 속에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은 바로 돌봄 선생님과 아이돌봄센터 담당자분들이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몸이 우선이에요. 선생님은 저희가 지원해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외로운 치료를 준비하는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

정기 돌봄 선생님께서는 "엄마가 없어도 아이들은 잘 지낼 수 있어요. 제가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주셨다.

엄마인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줄 전문적인 분이 있다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다. 분유를 타고, 아이를 재우고, 놀아주는 모든 일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치 '엄마처럼' 해주셨다.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들이 불안해할까 걱정되어 시간을 연장하여 둘째를 재워주고 가시기도 하고,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살펴봐주시며 정서적인 부분까지 채워주셨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선생님과의 영상통화였다. 화면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훨씬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통통해진 얼굴로 웃으며 노는 아이들을 보며,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첫째에게 "누가 제일 예뻐해?"라고 물으면, 아이는 "돌돌선생님!" 하고 대답한다. 그만큼 선생님은 아이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신다. 잘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엄청 칭찬해주시고, 조금 부족한 것은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위로해주신다. 아이가 떼를 쓰고 울어 엄마인 나조차 버거울 때도 어떤 게 불편한지 바로 캐치해서 해결해주셨다. 그 덕에 아이들이 너무나 편히 잘 지내게 되었다.



나 역시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 하루하루 버겁기만 했던 육아 속에서,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키워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부부가 딩크에서 벗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주변 워킹맘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많기에, 나는 주변에 이 서비스를 꼭 한번 이용해보라고 권하고 다닐 정도가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아이돌봄서비스 관계자분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육아란 티가 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쉬운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헌신적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무거운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우수상

이용자 우수사례

낯선 마음에 슬픈 당신에게

오든눈 | 경기도 안양시아이돌봄센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이가, 어느 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인데, 너무 지친 나머지 그 웃음 앞에서도 제 마음은 자꾸 메말라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마주하는 게 많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에도 힘이 필요하다는 걸 그 힘이 바닥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가던 저와 우리 가족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그때의 저와 같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가 저와 같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는 엄마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 무렵 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이는 항상 자던 시간인데도 어느 날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겨우 재우고 돌아서면 깨서 울고, 해야 할 일을 하려 하면 변을 치워야 하거나 토하는 바람에 목욕을 시켜야 했고, 영문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밥 한 끼 편안하게 먹기 어렵고,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글 시간도 없이 급하게 씻고 나오기 바쁜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잠시만 봐 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기에 잠깐의 쉴 틈도, 마음을 돌릴 여유도 없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몸이 지치니 마음도 함께 메말라갔습니다. 아이의 웃음 앞에서도 머릿속엔 끝내지 못한 일, 미뤄둔 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곁에 두고 싶어 낳은 아이를 정작 온전히 예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저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일어난 사고나 학대 소식이 뉴스에 자주 나왔고, 모르는 사람한테 내 아이를 맡긴다는 게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신청은 해놓고도, 선생님이 오시던 첫날에는 옆방에서 CCTV 화면을 틀어놓고 눈을 떼질 못했습니다. 화면 속 아이와 선생님을 몇 번이고 확인하느라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혀준 건 아이돌봄서비스 안에 갖춰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 이수 현황, 범죄경력 조회 결과, 거주지역, 건강검진 조회까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놓였던 건, 이게 시작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활동하시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셨고, 나 역시 설문조사와 평가에 참여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봄센터가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사이에서 안전과 신뢰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자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안심시킨 건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 선생님이 기저귀로 만들어준 모자를 쓴 모습
◀ “사랑해요!” 하며 하트를 만든 순간

아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엄마가 된 나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지금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몰랐는데, 선생님은 아이에게 ‘사랑해요’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머리 위로 두 팔을 모아 동그란 하트를 만들면서 “사랑해요!” 하는 아이 모습을 영상에 담아 바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치 손주를 자랑하는 할머니 같으면서도, 엄마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고, 내 아이를 손주처럼 예뻐해주시는 그 마음에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장난감을 하나 더 사줄까, 책을 한 권 더 사줄까 고민하던 초보 엄마에게, 비닐 한 장으로도 아이와 놀 수 있다는 걸, 기저귀로 모자를 만들면서 까르르 웃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을 주워다 보여주시고, 겨울에는 눈을 뭉쳐서 가져와 아이 손에 쥐여주셨습니다. 비싼 게 아니어도, 계절과 일상 속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자극을 주고 어떻게 사랑을 전하는지를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CCTV를 확인하는 일도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는 선생님을 무척 따랐고, 선생님도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습니다. 돌봄이 끝난 지금도 우리는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아이가 지금도 그때 선생님과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얘기를 물어보면 기억이 난다는 듯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데 그 시간들이 아이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아 있구나 싶어서 뭉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그냥 ‘아이를 맡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숨을 돌리고 다시 웃으며 아이를 안아줄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 속에서 자랐고, 저는 그사이 잠시나마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고 나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때는 10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배정되면 서약서를 쓰고 그전에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생후 60일 무렵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를 돌봐주신 선생님은 다른 가정에서 활동 중이셔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새로 오신 선생님도 둘째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첫째를 가정보육하느라 둘째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게 늘 미안했는데, 선생님이

마사지나 터미타임 등으로 이 시기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걸 잘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따뜻하게 놀아주십니다. 둘째 돌봄을 이용한 지 이제 한 달쯤 되어가는데, 저는 또 한 번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때는 두려운 마음에 CCTV를 켜두고 마음을 졸였다면 둘째 때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선생님과 둘째 선생님은 서로 다른 분이시지만, 두 분 모두 한결같이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보살펴주셨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첫째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 그저 행운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돌봄서비스가 엄마와 아이를 위해 정말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마음에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이 제게 준 건 '여유'였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를 더 사랑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늘 시간에 쫓기고 부족한 체력으로 힘들기만 했다면, 이 시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기도 어렵고, 아이를 오로지 사랑스럽게 바라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고스란히 저와 아이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아이에게 어떤 놀이를 해주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초보 엄마가 막막해하던 부분을 선생님이 채워주신 덕분입니다. 아이는 시기에 맞는 자극을 충분히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먼저 건넬 줄 알고 사람을 반갑게 맞이할 줄 아는 아이로 컸습니다. 돌봄을 받으며 자란 시간이 아이에게 결핍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와 아이를 넘어 가족 전체로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힘든 나머지 잠깐 시간이 나도 부족한 잠을 채우기 바빴고, 부부가 교대로 아이만 보다 보니 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예민하게 굴었고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육아에서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기니, 집안에 웃음이 늘고 부부 사이의 날 선 마음도 풀어졌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지금도 저는 내일이 두렵기보다 기대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우리 가족이 어떤 시간을 함께 그려갈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정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가 더 넓게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의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손길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찾은 여유는 분명, 아이를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이 되고 아이는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행복이 곧 아이의 행복이니까요.

당신의 낯선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두 아이의 엄마 드림

우수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아이와 어린 엄마를 응원하며

김 태 연 | 경기도 포천시아이돌봄센터

나는 포천시 아이돌봄센터에서 8년째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에게 돌봄이란 그저 부모의 빈자리를 잠시 메우는 일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시간 동안 아이의 보살핌이 비어 있는 틈으로 찬 바람이 들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가득 채워주는 일, 그것이 지난 8년간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다.

8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갓난쟁이 영아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안아주면서 돌봄이라는 것의 참의미를 배웠다.

나의 방문으로 가정과 아이에게 작은 웃음을 줄 수 있고, 나와 이용자가 서로 굳게 신뢰하며 아이를 밝고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친엄마와 딸처럼, 혹은 친할머니와 손주처럼 끈끈한 정으로 이어질 때마다, 아이들의 정서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때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오늘은 내 마음 한편에 가장 깊게 자리 잡은 아이, 이제 만난 지 3년째가 되는 ○○라는 아이와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한다.

처음 만났을 무렵 ○○는 다섯 살이었다. 또래보다 유난히 체구가 작았고 아는 단어가 많지 않아 자기 마음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참 어려워했다. 게다가 기저귀도 아직 떼지 못해 언제나 내 품에서 잔뜩 겁을 먹고 불안해하던 작은 아이였다.

○○ 어머니는 겨우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를 품에 안았다. 본인도 아직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어린 나이인데도 서툴기만 한 엄마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살았다. 평일 직장 생활로는 모자라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억척스럽게 생활비를 버는 그 앳된 뒷모습을 볼 때면 내 가슴도 많이 아렸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의 유치원 등원을 돕고 때로는 해질녘 늦은 시간까지 아이 곁을 든든히 지켰다. 어머니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날에는 주말 돌봄까지 도맡느라 덩달아 바쁜 날들을 보냈음에도 지치지 않고 활짝 웃을 수 있었던 건 오롯이 ○○ 덕분이었다. 나를 진짜 할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온전히 믿고 따르며 편안하게 장난도 치고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었던 그 시간들이 내게는 크나큰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3년을 함께하며 올해 예쁜 일곱 살이 된 ○○와 나는 요즘 아주 특별한 도전에 나섰다. 바로 ○○가 가장 무서워하던 '킥보드와 자전거 배우기'다.

아빠의 빈자리가 있다고 ○○가 세상에 나서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주눅 들지 않기를 바랐다. 당당하고 씩씩하게,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바람을 가르며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단단히 운동화 끈을 고쳐맸다. 처음 킥보드 위에 한 발을 올리고 겁에 질려 내 손을 꽉 쥐던 아이가 어느덧 스스로 발을 구르며 쌩쌩 바람을 가르는 모습을 지켜볼 때 어찌나 콧등이 시큰해지던지!

예순이 넘은 내가 아이의 자전거 뒤를 잡아주며 달리는 일은 솔직히 땀이 뻘뻘 흐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된 일이다. 그럼에도 자전거의 보조 바퀴가 지면을 힘차게 구르며 내는 드르륵드르륵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신이 난다. 그 소리가 마치 ○○가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내딛는 씩씩한 함성처럼 귓가에 울렸기 때문이다.

숨을 고르며 흔들리는 자전거 뒷자리를 꼭 잡고 달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보조 바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도 어린 엄마와 딸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어주고 있는 거라고.

지난 주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어머니에게 ○○가 혼자서 킥보드와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보던 어머니는 끝내 눈시울을 붉히며 내 두 손을 잡았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로.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가 또래에 비해 체중도 한참 미달이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컸고요.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서툴었는데 이제는 제게 재잘재잘 말도 잘 걸어요. 늘 우물쭈물 불안해하던 아이가 무서움도 이겨내고 활짝 핀 꽃처럼 웃고, 다른 아이들처럼 밝게 자라준 건 전부 선생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진심 어린 한마디를 듣는 순간, ○○ 곁에서 아이와 함께 울고 웃은 지난 3년의 시간들이 벅찰 만큼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돌봄이란 결국 누군가의 험난한 인생 자전거에 안전하고 따뜻한 보조 바퀴를 달아주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용기를 주어 결국은 활짝 핀 꽃처럼 환하게 웃게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가 저 보조 바퀴를 떼고 온전한 두 바퀴로 세상이라는 넓은 길을 당당하고 거침없이 달릴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나는 ○○의 등 뒤에서, 그리고 누구보다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쉼 없이 땀 흘려 달리는 ○○ 어머니 곁에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의 60대 시절을 이토록 보석처럼 눈부시고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준 ○○와 ○○ 어머니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연의 끈을 이어주고 세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포천시 아이돌봄센터에도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다.

우수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나의 행복한 삶 속에 따뜻한 동행, 아이돌봄활동

박 효 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아이돌봄센터

해가 길어진 요즘, 동이 일찍 트며 오늘 하루가 밝게 찾아왔다. 그 밝음에 응하여 "오늘 하루도 잘 해내자!"라고 다짐하며 나도 활기차게 집을 나선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용자님들의 이른 아침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하기 위해 그들의 바쁜 일상에 한 팀을 이루며 뛰어 들어간다.

햇살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질 즈음 오전의 돌봄들을 마치고 '오늘도 돌봄 할머니가 빨리 데리러 오면 좋겠다' 하며 기다리고 있을 ○○에게로 향한다. 오늘은 교실 창문에서 보았는지 "어! 선생님, 돌봄 할머니가 걸어와요!" 하며 ○○가 나를 마중 나온다. 손을 잡고 하원길을 걸으며 그새 자란 푸릇푸릇한 새싹을 보고 있자니 ○○가 나에게 말을 건넨다.

"돌봄 할머니! 개미! 이건 돌봄 할머니가 좋아하는 쑥이네!"

"돌봄 할머니! 하늘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구름이에요!"

○○가 작고 귀여운 입으로 전달해주는 '봄 알림'들을 듣다 보니 문득 나도 생각에 잠긴다.

아이돌봄사로 일한 지 벌써 13년차. 줄지어 서 있는 나무 아래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처럼 쌍둥이 돌봄 세 가정을 비롯한 여러 만남들 속에서 나와 함께했던 18명의 천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동안 함께했던 가정들이 모두 감사하고 특별했지만, 지금 내 손을 잡고 신나게 콩콩 뛰고 있는 ○○와는 첫 만남부터 각별했다. 90일쯤 된 작고 예쁜 남자아이 ○○는 사실 조금 아픈 아이였다. 그래서 ○○의 돌봄을 결정하기까지 조금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와 ○○의 가정에 내가 함께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 부모님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돌봄 활동을 수락했다.

반달 눈웃음이 매력적인 ○○는, 당시 왼쪽 목에 사경(한쪽 목의 흉쇄유돌근이 경직되어 목이 기울어지는 질병)이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취해주어야 했기에 밀착해서 돌봐야 하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아이였다.

○○가 병원을 다녀온 날이면 의사 선생님의 진료 전달사항을 부모로부터 공유받아 숙지하고 적용하며 최선을 다해 돌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8개월이 되었을 무렵, '발달지연판정'을 받게 되었다. 판정 소식을 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 엄마의 눈물에 이어 ○○ 아빠의 무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힘든 마음을 애써 누르고 출근하는 ○○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안타깝고 아팠다.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는 꿀꺽꿀꺽 분유도 잘 먹고 나를 보며 해맑게 웃었다. 나는 ○○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와 ○○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해주세요!"

기도하던 중 예전에 아픈 아이를 돌보았을 때 익힌 재활치료법이 떠올랐다. '일단 뭐든지 해보자'는 생각에 의지가 차올랐고,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나만의 특훈을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가 나를 보고 앞으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순간 소름이 돋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영상을 찍어 ○○ 부모님께 보냈다. 벅차오르는 기대와 소망에 대한 감격, 눈물로 우리 셋은 하나가 되었다. ○○ 부모님은 퇴근길에 예쁜 미니 화분을 사와 내게 내밀며 "선생님, 감사해요!" 하고 마음을 전달했다.

○○의 가능성을 본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재활에 힘썼다. 나 역시 병원 가는 날이면 동행해 의사 선생님의 재활치료법을 눈여겨보고 확인한 후 곧장 실행하며 지속적인 반복을 거듭했다.

우리의 사랑과 노력 속에 ○○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고, 마침내 '정상발달' 판정을 받았다. '정상발달'이라는 네 글자가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에겐 엄청난 것이었다.

○○는 한때 '발달지연판정'을 받았던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 건강은 물론 언어발달도 빨라서 '7살짜리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언어 구사와 표현력이 뛰어나고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는 '슈퍼발달' 아이가 됐다. '이렇게 극적인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여태껏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이돌봄 활동을 쭉 해온 이유가 바로 이런 보람과 노하우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었다. 그동안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활동한 나 자신을 스스로 대견스러워하자 건강한 자부심과 그로 인한 에너지가 솟구쳐 올랐다.

나는 아이돌봄사로서 비전과 방향이 세워져 있다. 돌봄 아동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아이, 사랑받는 아이, 받은 사랑을 나눠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신뢰와 존중,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나의 양육 방향이다.

무엇보다 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아이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공동체가 되어 돌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용자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활동일지 작성은 물론, 돌봄 중에 보게 된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매일 보여주며 확인시켜준다.

나 역시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 일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고충들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힘든 업무 속에서 내가 보낸 아이의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아 보며 아이의 예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와 아이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시킬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모른다.

몇 년이 지났어도 이전 이용자들과 서로 연락하며 아이들의 성장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아이의 양육에 대한 고민을 편하게 내게 풀기도 하는 관계의 연결고리 또한 귀하고 감사하다. 주말에 돌보는 쌍둥이 가정에서는 돌봄 선생님이 오면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지만 이용자들 역시 “저희도 잠시 쉴 수 있는 틈새 시간이 생겨서 아이들과 함께 고개를 내밀고서 선생님을 기다려요!”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고단한 출근길이 될 때도 있지만 활동을 마치고 나올 때면 늘 온가족이 나와 웃음 가득한 감사 인사를 나누며 뿌듯한 퇴근길을 만들어준다.

때로는 주변 지인들과 내 자녀들이 아이돌봄사 활동이 힘들지 않냐고 묻는다. 걱정해주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게는 아이돌봄사 활동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함으로 맑은 동심 속에 살 수 있고, 부모들에게 귀한 존재로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더불어 경제 활동까지 하는 아이돌봄사 활동이 자랑스럽다. 내 자신에 대한 뿌듯함과 아이돌봄사로서의 자부심이 내 삶의 보람과 기쁨의 열매가 된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이용자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아이돌봄사 활동 속에 따스한 온정을 느끼고 나눌 수 있다.

오늘도 나는 또 다른 천사들을 만날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슴이 부푼다. 앞으로도 나는 이용자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의 동행자로 행복한 삶을 함께 하고 싶다.

우수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아이돌봄으로 행복한 선생님

권정술 | 경상북도 청송군아이돌봄센터

조심스럽기만 했던 백일 무렵의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부모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작은 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내 마음속에는 무거운 책임감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내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아직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느껴졌던 따뜻한 체온과 여린 숨결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혹시라도 아이가 놀랄까 조심스럽게 안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함께했다.

어머니께서는 평일에는 요가 강사로 활동하시며 누구보다 부지런한 일상을 살아가셨고, 주말이면 휴일도 반납한 채 과수원으로 달려가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하며 사과나무를 돌보았다. 뜨거운 여름에도, 바람이 차가운 계절에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에서 아이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정직하게 흘린 땀만큼 결실을 얻는 일



이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사실을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며 알게 되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부모님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아이를 맡기는 미안함과 간절함, 그리고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조용히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보겠다'는 다짐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우유를 먹이고, 작은 등을 토닥이며 트림을 시키던 고요한 오후, 어느새 잠든 아이 곁에 앉아 새근새근 숨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평화롭게 느껴지곤 했다. 아프지 않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걱정하며 체온을 살피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예민해졌던 시간들은 어느새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잘 자라주기만 바란다'고 기도하던 아이는 어느덧 나와 함께 6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다.

큰아이 ○○는 어릴 때부터 습득력이 빠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하나를 알려주면 그 너머의 두세 가지를 스스로 깨우치곤 했고, 무언가에 관심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집중력이 있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는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책 속 이야기에 푹 빠져 있곤 한다. 또 어떤 날에는 책상 앞에 앉아 색종이와 만들기 재료들을 한가득 펼쳐놓고 몇 시간이고 집중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낼 때도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이의 작은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상상과 생각들이 자라고 있는지 느껴진다.

내가 "○○야,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으면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이거 만드는 중이에요." 하고 보여준다. 설명하는 ○○의 눈빛에는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이 가득 담겨 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작은 아기였던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키워가는 어엿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대견스러웠다.

둘째 △△는 24개월이 될 때까지 말이 늦은 편이었다. 또래 아이들보다 표현이 적어 부모님도, 나도 걱정이 많았다. 혹시 아이가 마음속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해 답답한 건 아닐까 싶어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눈을 맞추며 기다려주었다.



그러던 △△가 어린이집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 뒤를 졸졸 따라오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하고 불렀다. 아직은 서툴고 짧은 발음이었지만, 그 순간 내 가슴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다.

"선생님!"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 밖으로 마음을 내밀어준 첫걸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우리 △△ 정말 잘했네!” 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그날의 감동은 시간이 꽤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돌봄을 통해 성장한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나 또한 아이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쁨과 웃음, 그리고 가슴 뭉클한 순간들을 선물받았다. 아이들을 만나는 매일의 시간이 내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었고, 지치고 힘든 날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다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아이들과 나는 집 주변 사과밭을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봄이면 꽃향기를 맡고, 여름이면 매미 울음소리를 듣고,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사과를 바라보며 계절을 함께 느낀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나를 맞이한다. 만나자마자 “선생님!”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다. 내 앞에 와 숨을 헐떡이며 “선생님,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하고 유치원 가방 속에서 정성껏 접은 종이 만들기를 꺼내 보여주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재잘재잘 쉬지 않고 들려준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하루 일과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 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다.

아이가 자랑스럽게 내미는 작은 손을 잡고 “와,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구나. 최고다.” 하고 엄지를 들어주면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다. 자연스럽게 내 품에 안기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행복이 느껴진다.

돌봄은 단순히 아이를 보살피는 일이 아니다. 아이의 하루를 함께 살아내고,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마음으로 연결되는 일이다. 아이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 나를 낯설어하던 작은 아이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달려와 안기는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 아이들을 통해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여섯 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품에 파고드는 아이를 보며, 내가 두 남매에게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돌려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돌봄사라고.

우수상

사업담당자 우수사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2주의 기적,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온 마을의 손길

여선주 | 경기도 안산시아이돌봄센터

절박했던 이용자에서 돌봄의 온기를 전하는 실무자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절박한 이용자이자 양육자였다.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를 키우며 예기치 못한 공백이 생길 때마다 세상에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 발을 동동 구르곤 했다. 그때마다 내밀어지던 돌봄의 손길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고마웠는지 모른다. 누군가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삶의 고비들을 넘기며 마음속에 '내가 받은 이 고마움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작은 다짐이 생겼다.

그 간절함이 닿았는지 안산시 아이돌봄센터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합격 통보를 받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의 일원이 되었다.

이제 출근한 지 고작 5개월차가 된 신입 팀원. 아직은 모든 행정 업무가 서툴고 낯설지만, 양육 공백으로 다급해진 이용자의 전화를 받을 때만큼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내가 그 막막함을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이다. 매칭이 어려워 애가 타는 가정을 위해 돌봄사 선생님들께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마침내 "선생님, 제가 갈게요."라는 대답을 얻어내어 연계해드리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이용자의 깊은 안도감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뿌듯함은 신입인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리고 여기,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릿해지는, 내 5개월의 짧은 직장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다.

절박했던 어느 날의 전화 한 통

아이돌봄센터의 전화벨이 울리던 그날 오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과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만삭의 몸으로 홀로 세 살배기 첫아이를 키우고 계신 한부모 가정의 어머님이셨다.

출산 예정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분만을 하러 병원에 가야 하는 순간부터 산후조리원을 거쳐 돌아오는 2주의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였다. 유치원에 가 있는 낮 시간 외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풀타임으로 아이를 돌봐줄 손길이 간절한 상황이었다.

"선생님, 제가 믿고 의지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연고도 없는 곳이라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요. 우리 ○○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출산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누군가에게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조차 없어 두려움부터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온 마을을 수소문하다–2주의 돌봄 작전

전화를 끊자마자 마음이 급해졌다. 아이의 안전과 어머니의 무사 출산이 아이돌봄센터의 발 빠른 대처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2주간 야간과 새벽을 포함한 풀타임 돌봄을 연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존의 돌봄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고, 무엇보다 낯가림이 있을 세 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성으로 보살펴줄 베테랑 선생님들이 필요했다.

그날부터 아이돌봄센터의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활동 중이신 선생님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살피고, 직접 전화를 돌리며 사정을 설명했다.

"선생님, 정말 절박한 가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2주 동안 한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진심은 통하는 법인지 감사하게도 아이돌봄센터의 뜻에 선뜻 동참해주시겠다는 세 분의 천사 같은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이 나타나셨다. 유치원 등·하원과 낮 시간을 책임져줄 선생님 두 분, 저녁 시간과 밤새 아이의 곁을 지켜줄 선생님 한 분까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벽한 '3인 1조 돌 봄 팀'이 구성되었다. 이용자에게 일정 등록을 안내하고, 배정하고, 승인까지 연계가 확정되던 순간,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핑 돌았다.

불안을 안심으로, 축복으로 바꾼 연대의 힘

돌봄이 시작된 2주의 시간 동안, 센터와 세 분의 선생님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의 하루를 빈틈없이 채워 나가셨다.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 이제 겨우 세 살인 어린 ○○가 분리불안을 겪지 않도록, 선생님들은 친할머니와 이모처럼 따뜻하게 아이를 품어주셨다. 이용자가 출산 전 미리 정성스레 준비해둔 음식들을 시간에 맞춰 알뜰히 챙겨 먹이고, 어린이집 알림장을 꼼꼼히 체크하며 등·하원길을 안전하게 동행하기도 했다. 특히 밤에는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리는 ○○의 손을 꼭 잡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밤새 정성을 쏟아주셨다.

그 덕분에 이용자는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출산에 전념할 수 있었고,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2주 뒤, 건강해진 모습으로 갓 태어난 둘째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이용자는 아이돌봄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출산하러 갈 엄두를 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막막했던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용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신없이 전화하고, 연계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숨 가쁘게 보낸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서비스를 연결하는 행정 업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주고 한 가정이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과 수많은 변수 속에 마음이 지칠 때도 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했던 가정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이용자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 또한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에 돌봄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정말 살 것 같았다", "버틸 수 있었다"라는 말이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일을 넘어 한 가정의 삶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안전망이 된다. 나는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가정에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업무일 수 있지만, 어떤 가정에는 다시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가정에 찾아왔던 기적 같은 2주의 시간은 오래 남을 것이다. 그 시간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흔들리거나 지칠 때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이유이자, 계속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의 곁을 지켜가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수상

사업담당자 우수사례

가장 따뜻한 매칭, 현장에서 피어난 보람

정 연 실 | 경상북도 울진군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담당자의 일과는 컴퓨터 모니터 속 엑셀 파일과 씨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용 신청자 명단과 돌봄사 선생님들의 스케줄표를 대조하고, 비어 있는 시간대를 촘촘히 메워가는 것이 하루의 주된 일과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저 한 건의 매칭을 '성공적인 행정 처리'로만 여겼다. 하지만 매칭률이라는 숫자 뒤에는 아이를 맡기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의 절박함과 자신의 품을 내어주어 한 아이를 돌보려는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듯 최적의 돌봄을 연결해 냈을 때, 그리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행정의 책상을 넘어 이 사업이 가진 진짜 '보람'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담당자로서 가장 잊지 못하는 보람의 순간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정에 긴급 돌봄을 연계해주었던 경험이다.

2년 전 겨울, 한 가정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수술을 받게 되어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 역시 직장 때문에 타지에 있어 한 달 동안 4살과 6살 아동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돌봄이 가능하신 돌봄사를 확인하여, 이용자 가정까지 43킬로미터나 떨어진 베테랑 돌봄사 선생님을 긴급 매칭해드렸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나서 모니터링을 위해 이용자와 통화를 나누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와 감사가 배어 있었다.

"아이돌봄센터에서 선생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생업, 육아까지 겹쳐 눈앞이 캄캄했는데, 선생님께서 매일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우리 가족을 살려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 가정의 일상이 붕괴될 뻔한 위기 속에서, 내가 처리한 전화 몇 통과 서류 작업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구원의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전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닿아 빛을 발하는 순간을 목격한 것, 그것이 담당자로서 느낀 첫 번째 보람이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단순히 아이를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봄사 선생님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담당자로서의 보람은 몇 배로 늘어난다.

맞벌이 가정에서 자라 다소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해 유치원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가 있었다. 부모님은 아이가 늘 기가 죽어 있는 것 같다며 걱정이 많았다. 당시 매칭된 돌봄사 선생님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 갔다. 블록 쌓기, 그림 그리기 등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며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쏟아부었다.

몇 달 후 현장 점검 차 방문한 가정에서 만난 아이는 우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처음 보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만든 로봇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밝은 아이로 변해 있었다.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아이가 표현이 많아지고 웃음이 늘었어요.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는 알림장을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내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하셨다. 한 아이의 성격과 삶의 태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보람이자 담당자의 특권이었다.

진정한 보람은 내가 제공한 아이돌봄서비스가 내 손을 떠나 현장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완성된다. 우리 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인연을 맺은 돌봄사 선생님 한 분은 몇 년 동안 한 아이를 정성으로 돌보셨다. 한부모 아버지 대신 아이의 입학식, 재롱잔치를 모두 대신 참석해주셨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특강을 들으러 다니시는 모습도 보았다.

제도가 맺어준 계약 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 즉 '우리 동네 육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단절되었던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

로는 예기치 못한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원하는 시간에 돌봄사를 구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의 원망을 들으며 지치고 낙담할 때도 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면 현장에서 들려왔던 감사와 감동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되짚어본다.

"담당자님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합니다."

"우리 돌봄사 선생님은 손주처럼 잘 돌봐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부모님과 돌봄사 선생님들이 전하는 귀한 이야기들은 사업담당자가 업무에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내가 흘리는 땀방울과 내가 작성한 서류 한 장이 우리 지역의 어떤 가정에는 평화로운 저녁을, 어떤 아이에게는 따뜻한 유년의 기억을 선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담당자라는 직함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우리 동네 모든 아이들의 행복과 부모들의 내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의 이름이다. 앞으로도 이 따뜻한 보람을 나침반 삼아, 더 많은 가정에 행복을 배달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할 것이다.

우수상

사업담당자 우수사례

돌보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돌봄

송 지 연 | 대전광역시 대덕구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로 근무한 지도 어느덧 6년차가 되었다. 회계부터 배정, 민원, 교육, 사례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수많은 이용자 가정과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을 만나왔다.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돌봄의 중요성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 오래 남는 질문도 있었다.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은 왜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바라보게 되었을까?"

민원으로 전화 상담을 하던 날이었다. 한참 동안 민원 내용을 들으시던 선생님께서 통화를 마무리할 때쯤 잠긴 목소리로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다.

"이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꼭 일을 해야 하나 싶어요."

쉴 새 없이 당부의 말을 전하던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선생님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으나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다.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은 이용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만큼 다



양한 감정노동을 경험한다. 어떤 가정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지만, 또 어떤 가정에서는 선생님들을 당연히 와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며 선생님들은 점점 위축되었고, 스스로를 '돌봄 전문가'가 아닌 단순히 '아이들 기저귀나 갈아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복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다 전문적인 태도와 복장, 소통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면 자연스럽게 현장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교육이 있는 날이면 선생님들은 조용히 가장 뒤편 자리에 앉으셨고, 먼저 나서려는 의욕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서 뭐하겠어요!"라며 웃어넘기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이용자 가정에서 겪었던 서운함은 생각보다 깊게 남아 있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감정노동을 반복해 온 선생님들의 낮아진 자존감은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구청에서 진행하는 여성친화마을조성 공모사업을 접하게 되었다. 돌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기회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외부 공모사업에 도전하였고, 총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1세대인 돌봄사 선생님들, 2세대인 부모, 3세대인 아동까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번째는 금융교육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은 중장년 여성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안고 있었다. 상담 중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단순한 재테크 교육이 아니라 왜 지금의 노동이 중요한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후에는 수제 도장을 만들고 통장을 개설해보는 체험활동도 진행했다. 도장의 모양은 삐뚤빼뚤 제각각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손에 들고 서로 보여주시며 웃으시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 돌봄사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처럼 보였다.



두번째는 부모와의 소통 교육이었다. 현장에서는 세대간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에서는 존중하는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등을 다루었다. 선생님들은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말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셨다. 이 과정을 통해 소통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번째는 놀이교육이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놀이 방식과 양육 환경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다. 특히 신규 돌봄사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놀이를 이끌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 강사와 함께 연령별 놀이 방법과 상호작용 기술을 배우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분위기가 금방 웃음으로 가득 찼고,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 같아요."

"내일 바로 해봐야겠어요."



교육이 끝난 후에도 선생님들은 쉽사리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로의 경험과 놀이 방법을 공유했다. 당일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께도 이런 내용이 전달되었다. 생각지도 않은 긍정적 시너지였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6회기 중 프로그램 재참여율은 80%에 달했고, 매회기 출석률 역시 98%를 기록할 정도로 선생님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달라진 태도였다.

"예전에는 교육이 귀찮기만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이와 노는 시간이 훨씬 편해졌어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덜 두려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이 변화한 사람은 어쩌면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돌봄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의 회복과 성장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는 돌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돌봄은 아이와 돌보는 사람 모두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려상

이용자 우수사례

벼랑 끝에서 만난 천사

소유미 | 충청남도 부여군아이돌봄센터

빛이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의 겨울

아이가 생후 10개월 무렵이던 때, 나는 남편과 이혼을 했다. 32년 내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아픈 겨울이었다. 아이와 함께 버려졌다는 슬픔과 혼자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한겨울 별마저 없는 어두운 밤하늘처럼 캄캄하고 막막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 등원 준비와 출근 준비를 하고, 밤늦게 지쳐 돌아와 왜 우는지 알 수 없는 아이를 달래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되물으며 영혼까지 서서히 메말라갔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일과 양육이라는 거대한 벽에 짓눌리며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결국 나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는 어리석은 시도까지 감행했다. 다행히 친구의 빠른 발견으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사흘 만에 겨우 눈을 떴지만, 눈앞에 마주한 현실은 더 참혹했다. 내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아이는 인근 도시의 아동학대 보호시설에 임시 위탁되어 있었던 것이다.

홀로 시설에 남겨졌을 아이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내 아이를 두고 어디를 가려 했을까!' 병상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기적처럼 찾아와준 나의 천사

다행히 부여군 가족행복과 담당 주무관님과 아동복지센터의 도움으로 2주 만에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고,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가로막았다. 성수기가 되어 일이 바빠져서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시간이 어린이집의 등·하원 시간과 맞지 않았고, 당장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던 내게 그 몇 시간의 공백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나를 떠밀었다.

나는 다시 부여군 가족행복과에 도움을 요청했고, 부여군 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지금의 돌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이전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친손주처럼 애지중지 키워내시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당분간 쉬려던 참이었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이돌봄센터에서도 내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안타까워하시고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의 돌봄 선생님께 상황을 전하셨고, 선생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우리 모자의 사연을 듣고 쉬지도 못한 채 무거운 걸음으로 우리집에 와주셨던 것이다.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심한 낯가림을 보였다. 내가 출근 가방을 들 때마다 내 옷자락을 찢어질 듯 붙잡고 악을 쓰며 울었다.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서서 출근하며 달리는 차 안에서 얼마나 많



이 울었는지 모른다. 직장동료들도 아침마다 퉁퉁 부은 나의 얼굴과 시뻘게진 눈을 보며 걱정이 많았다. 매일 아침마다 내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적은 없었지만 무척 힘드셨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매일 아침 아이를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용기를 주셨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 선생님들께서도 내게 돌봄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게 느껴진다고 전해주셨다.

어느 날, 아이가 먼저 선생님의 손을 잡고 품에 쏙 안기던 순간, 선생님께서 아이를 꼭 껴안고 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역시 한참 울었다. 이제 내 아이는 선생님을 친엄마처럼, 친할머니처럼 의지하며 먼저 달려가 안기는 밝은 아이가 되었다. 선생님 댁에 가자고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끌고 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선생님께 참 죄송하고 감사하다.

선생님께서 등·하원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신 덕분에, 나는 마침내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불덩이 같던 불안감도 서서히 사라졌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이를 대하는 내 표정과 말투도 몰라보게 밝아졌다.

물론 문득문득 불안감이 밀려와 무너지는 날도 있다. 그럴 때면 친정 엄마도 아닌 돌봄 선생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털어놓곤 한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씀하신다.

"○○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봐줄 거니까. 울지 말고 단단해져야 돼."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분을 넘어 내 마음까지 치료해주시고, 아이를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준 나의 '천사'가 되어주셨다. 선생님의 따뜻한 품 덕분에 나 역시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 삶의 휴식까지 반납하며 찾아와주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자는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고 있다.

함께 맞서 나갈 내 아이의 내일을 위해

최근 나와 선생님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이제 36개월이 넘은 우리 아이는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다. 혹시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시절의 상처가 아이의 발달을 늦춘 것은 아닐까 싶어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





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를 손주처럼 여겨주셔서 평소에도 초보 엄마인 나보다 먼저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많고 요즘은 기저귀 떼는 숙제가 남아 있어서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며 개선하고 있다. 나의 육아 고민까지 들어주시고 매일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정성껏 돌봐주신다. 글을 마치며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생님! 평소에 쑥스러워서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 항상 감사드리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저희 때문에 저녁 약속도 못 잡으시고 매일 아이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도 안 받으시고 아이 옷 사 입히라고 오히려 용돈 챙겨주실 때마다 집에 가서 아이 재우고 얼마나 우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 삶은 복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에 가장 큰 복이에요. 도와주시는 것에 보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하루하루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것뿐이에요. 제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주시고 아이돌봄이 끝나더라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아이가 클 때까지 인연을 이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가장 어두웠던 날, 우리 모자의 손을 절대 놓지 말아 달라는 아이돌봄센터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해주신 나의 선생님. 선생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안심하고 일터로 향하며, 내일을 꿈꾼다. 선생님이 덜어주신 삶의 무게만큼, 더 당당하고 멋진 엄마가 되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낼 것이다. 내 삶에 다시 살아갈 용기와 봄을 선물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부여군 아이돌봄센터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장려상

이용자 우수사례

꺄르르 선생님이 데려온 봄

– 한 사람의 돌봄이 우리 가족에게 위안을 –

임다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아이돌봄센터

아이를 두고 현관문을 나서던 아침,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곤 했다. 아이의 울음은 등을 떠밀고, 죄책감은 발목을 붙잡았다. 결국 뒤돌아보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시절의 나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서서히 소진되는 바람이 빠져가는 풍선 같았다. 누가 건들면 빵!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워킹맘이었던 나는 지역 신문 한 귀퉁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글귀를 발견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한 줄이, 우리 가족의 계절을 바꾸는 첫날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첫째를 낳고 곧이어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나의 하루는 늘 어딘가 비어 있었다. 아이 곁에 있으면 일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나를 잠식했다. 회사에 출근해서는 두고 온 아이가 생각나고, 퇴근해서 오면 다 마치지 못한 일이 생각났다. 그 어느 쪽에도 온전히 서지 못한 채,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무너지던 나의 일상은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만해졌다. 더 이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었고, 일터에서는 처음으로 '온전히 일에 집중하는 나'를 되찾았다. 그 덕분에 업무 효율은 높아졌고, 마음 한편을 짓누르던 긴장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금의 아이돌봄사 선생님을 만난 것은 둘째를 임신 중이던 시기였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던 그때,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 '봄의 시작'처럼 다가오셨다. 낯가림이 심해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던 첫째가 처음으로 엄마를 찾지 않고 선생님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던 날, 내게 들려온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늘 밝게 웃으며 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을 '꺄르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귀에 딱 '꺄르르'라고 들려서 성함을 외우지 못했을 때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첫째는 "꺄르르 선생님 언제 와?" 하고 먼저 묻기도 하고, 동네를 지나다 선생님 댁 근처에 이르면 "여기가 꺄르르 선생님 집이지? 선생님이 근처에 오면 전화해도 된댔는데!"라며 설레는 마음을 보여준다. 엄마만 찾던 아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억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은 나에게 낯설고도 고마운 변화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괜찮겠구나.'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허락한 안심이었다.

선생님은 아이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었고, 서툰 엄마인 나를 평가하지 않았다. 그분의 차분한 돌봄은 우리 가족의 일상에 잔잔히 스며들었고, 늘 긴장 속에 있던 나의 시간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며, 우리 가족의 일상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다.

그동안 육아는 철저히 '부모' 둘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잠시라도 손을 놓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돌봄은 혼자 버텨내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이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선생님 덕분에 나는 한 템포 숨을 고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전해주셨다. 덕분에 나는 떨어져 있어도 아이의 하루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아이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다. 지쳐 있는 날이면 건네주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 짧은 한마디 말은 오랫동안 나를 붙들고 있던 자기 의심을 조용히 내려놓게 했다. 덕분에 나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일과 육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어느새 꺄르르 선생님과 함께한 지도 3년이 되었다. 뱃속에 있던 아이는 어느새 31개월이 지났고, 둘째 역시 이른 아침, 부모의 손길이 아닌 꺄르르 선생님께서 묶어준 머리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한 채, 단정하게 등원한다.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아 언어 지연을 겪는 둘째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게 선생님은 조금 느린 아이가 말이 더 금방 는다며 안심과 위안을 주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어놓았다. 아이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정서적으로 한층 편안해졌고, 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이와 나는 셋째를 상상하며 '꽃'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보았다. 첫째는 "꽃이가 오면 같이 놀아줄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며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꺄르르 선생님 덕분에 이런 상상과 여유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역할을 넘어, 부모인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계절처럼 우리 가족의 삶에 스며들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불안감으로 춥고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을 지나, 이제 우리 가족은 조금 더 따뜻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분명하게 이어지는 이 변화의 선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우연히 찾아온 이 봄은,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장려상

이용자 우수사례

‘귀한 천사’들을 맞이하기까지 기다렸던 시간

안화영 | 경기도 고양시아이돌봄센터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일찍 결혼한 탓에 조금 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뒤에 육아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마음 한편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는 것, 좋은 부모를 꿈꾸는 일이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삼십대 중반이 되어 임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고 준비했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들었다. 불안함과 실망감, 조급함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오던 시간이었다. 결국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었고, 당시 자궁 상태로 인해 수정란 하나만 이식하게 됐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한 번의 시술로 쌍둥이를 품게 됐다.

첫 시도에 쌍둥이라니! 그 순간의 감사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지나고 보니 초조하게만 느껴졌던 기다림의 시간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회사와 친구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많은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축하와 함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의외로 “육아는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였다. 나에게 아이는 오래 기다려 얻은 축복이자 선물이었다. 그런데 이미 육아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힘듦’이었다. 게다가 쌍둥이라는 이유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라는 말도 자주 들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축복의 의미보다 고생의 무게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다짐했다. 아이와 힘듦을 연결 짓지 말자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이 아이들이 내게 와준 기쁨만큼은 잊지 말자고.

‘처음’이라 어렵고, ‘혼자’여서 막막했던 순간

나는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안 계신다. 친정과 시댁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 남편 외에는 육아를 함께할 가족이 없다. 하지만 남편 역시 직업 특성상 육아휴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됐다. 출산 후 3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날짜에 맞춰 서둘러 신청했던 기억이 난다. 다만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배정되기까지는 몇 달의 대기 기간이 필요했다.

솔직히 조금 막막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온 축복인 쌍둥이들을 잘 키워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버텨냈다. 몸살 기운이 심하게 오던 날에는 단기 돌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하루를 넘기기도 했다. 그렇게 몇 번의 단기 서비스를 경험하며 새삼 깨달았다. ‘아, 나는 원래 무척 내향적인 사람이었구나!’ 낯선 사람이 집 안에 함께 있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분명 내 집인데도 괜히 방으로 숨고 싶어지는 날들이 있었다. 물론 모두 좋은 선생님들이셨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이 부럽기도 했다. 힘든 상황이었으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묵묵히 임했다.

그러다가 이유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계를 느끼게 됐다. 두 아이가 먹을 이유식을 만들어 번갈아 먹이고, 씻기고, 다시 분유를 먹이는 과정이 반복될 때 처음으로 '아… 너무 버겁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잘 하고 싶은데 경험과 체력적인 한계로 막막함이 밀려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곤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심사가 완료되어 담당 선생님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쌍둥이를 홀로 양육하는 가운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기서비스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쌍둥이 집이라 힘들 텐데 오신 분이 싫어하시면 어쩌지?' 등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후 고민하다 돌봄서비스를 요청하게 되었고 처음 ○○○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

돌봄 선생님께서 현관문을 열고 처음 인사를 나누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난다. '아, 이분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선생님께서는 "그간 쌍둥이를 혼자 돌보시느라 애기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다. 처음 보는 분이 집에 들어와 계신데도 오랜 시간 함께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신기하게도 그날 쌍둥이들이 처음으로 이유식을 남김없이 다 먹었다. 능숙하고 다정한 선생님의 손길이 아이들에게도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돌봄케어

어린이집 교사 경력과 장기간의 현장 경력이 있으셨던 선생님의 돌봄은 단순히 밥을 먹이고 놀아주는 수준이 아닌 전인적 교육과 케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말투였다. 쌍둥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수가 줄어들고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없는 순간이 많았다. '둘을 키우니 어쩔 수 없지!'라는 정당화와 함께 '이러한 침묵이 아이들 발달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방법을 모르겠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이때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보여주신 상호작용이 정말 인상 깊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밝고 다정하게 반응해주셨다. "우리 △△ 잘했네!", "우아, 정말 멋지다!", "기분이 좋구나!" 같은 긍정적인 말들이 집 안 가득 채워졌다. 그 모습을 보며 나 역시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를 들려주어야 하는지, 지금 시점에는 어떠한 놀이를 통해 발달을 자극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선생님이 단순히 아이들만 돌봐주신 것이 아니라 엄마인 내 마음까지 함께 돌봐주셨다는 점이다. 내향적인 나의 성향을 고려하시며 편안하게 다가와주셨다.

'서비스'를 넘어 '동행'으로 마주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나에게 단순한 돌봄 지원이 아니었다. 육아 앞에서 작아지고 불안해지던 한 사람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안심시키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리고 ○○○ 선생님은 그 시간 속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지금도 나는 종종 생각한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도움과 마음을 통해 함께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쌍둥이가 밝게 웃으며 자랄 수 있는 건 가족의 사랑뿐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의 따뜻한 돌봄 덕분이라는 것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배우게 해준 시간이었노라고.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이 오시는 시간을 가까운 가족이 방문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나를 보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장려상

이용자 우수사례

아이마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법이에요

이유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아이돌봄센터

나에게는 5살 첫째 아이와 8개월 된 둘째 아이가 있다.

첫째는 29주 조산아로 태어나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 매일같이 재활운동과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아이를 낳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됐다. 나의 하루하루 생활은 그 어떤 직장인보다 치열하고 고단했다. 아이의 재활치료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둘째가 생겼다.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갓난쟁이인 둘째를 안고 첫째 손을 잡고 일주일의 5일을 재활센터를 오가게 됐다. 재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둘째는 좁은 대기실에서 울음을 터트리기 일쑤였고, 나는 첫째의 치료에 집중하지 못한 채 늘 주변의 눈치를 보며 미안함에 젖어 살았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중, 이웃의 추천으로 알게 된 아이돌봄서비스는 나에게 한줄기 빛과 같았다.

처음에는 첫째의 어린이집 등원을 도와주실 선생님을 아이돌봄서비스에 신청하는 것으로 인연을 맺게 됐다. 둘째를 안고 첫째를 챙겨 아침마다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 벅찼기 때문이다. 처음 매칭된 선생님을 뵙던 날, 나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며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해주셨다.

"어머니, 걱정마세요. 아이마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법이에요. 제가 그 보폭에 맞춰볼게요."

그 한마디는 지난 몇 년간 아이의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던 나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다.

선생님은 아이의 성향과 특이사항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며, 매일 아침 첫째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둘째가 태어난 뒤 첫째에게도 알게 모르게 심리적 불안감이 커 보이던 시기였는데, 선생님은 단순한 등원 도움을 넘어 아이의 마음까지 살펴주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다. 첫째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둘째를 돌봐주어야 했고, 더 이상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둘째를 차가운 재활센터 복도에서 키울 수도, 첫째의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결국 둘째의 돌봄까지 신청하게 됐다.

솔직히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엄마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송파구 아이돌봄센터의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 선생님이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다.

"어머니, 4개월이면 얼마나 예쁘고 귀한 때인가요. 제가 어머니 마음으로 정성껏 품을 테니, 첫째 아이의 눈을 온전히 마주하고 오세요."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정말 간절히 원하던 말이었다.

선생님께 둘째를 맡기고 처음으로 첫째와 단둘이 재활센터로 향하던 날을 잊지 못한다. 유모차를 밀지 않아도 되는 가벼워진 두 손으로 나는 비로소 첫째의 작은 손을 꽉 쥘 수 있었다. 재활치료 시간, 대기실 복도에서 둘째를 달래느라 동동거리던 나는 이제 치료실 안에서 아이의 보폭에 맞춰 박수를 쳐주는 엄마가 되었다.

아이가 힘겹게 균형을 잡을 때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할 수 있는 여유, 치료사 선생님의 피드백을 꼼꼼히 메모할 수 있는 집중력. 이 모든 것은 4개월 된 둘째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의 시간'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 선생님은 둘째의 수유와 수면, 놀이까지 완벽하게 챙겨주셨고, 아이가 답답하지 않게 성내천 산책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도 쐬어주셨다. 재활치료가 늦어지는 날, "어머니, 걱정 마세요. 둘째는 지금 곤히 낮잠을 자는 중이에요."라며 보내주신 사진 한 장은 나에게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보험이었다.

송파구의 잘 가꿔진 공원과 안전한 보행로는 선생님과 우리 아이에게 훌륭한 교실이 되어주었다. 덕분에 나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라는 고립된 섬에서 나와 다시 희망을 꿈꾸는 엄마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을 사는 서비스가 아니었다. 한 가정의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우는 심폐소생술과 같았다.

첫째는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둘째는 선생님의 세심한 손길 아래 건강하게 자라 지금은 배밀이도 하고, 잡고 서기도 한다. 나와 신나게 놀다가도 선생님께서 오시면 무슨 모터라도 달린 것처럼 재빨리 기어가 안기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이와 선생님 사이의 신뢰가 두텁구나 싶어 엄마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고, 이게 웬 행운인가 싶다.

아이의 장애로 인해 늘 예민하고 지쳐 있던 내가 다시 웃음을 찾으면서 우리 집의 공기도 따뜻하게 바뀌었다. 부모가 숨쉴 수 있어야 아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송파구 아이돌봄센터가 증명해준 것이다.

첫째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었던 나는 이제 커리어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주말 시간이 생겼다. 정말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다. 평범한 일상을 다시 선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장애아뿐만 아니라 어린 동생이 있는 가정에도 이 서비스는 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한다.

느리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첫째, 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둘째,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손을 기꺼이 잡아준 송파구 아이돌봄센터와 아이돌봄사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재활과 양육 사이에서 눈물짓고 있을 송파구의 많은 부모님들께 이 수기가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장려상

이용자 우수사례

우리 집의 여섯 번째 가족, 아이돌봄 선생님께

김 두 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아이돌봄센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게 어느덧 4년째가 되었네요. 선생님께 편지를 쓴다는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이 찡해지네요.

2019년생 첫아들을 키우다 2021년생 둘째 아들을 낳고, 둘째가 3개월이 되어갈 즈음 뱃속에 셋째 아들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지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때는 하지 않았던 극심한 입덧을 겪게 되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첫째 아이에게 아침으로 해주던 밥조차 안치지 못하였고 이제 막 배밀이를 시작한 4개월 된 둘째를 돌보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제 인생에 행운을 다 가져다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금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초겨울 선생님과의 첫 만남, 낯가림도 있는 제가 조부모님의 도움 없이 홀로 제 손으로만 키워오던 아이들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을 뵙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보낸 첫 겨울에 저희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던 따뜻한 모습과 아이들만 챙기던 제 입에 씻은 딸기를 넣어주시며 "엄마가 기운을 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워요."라던 위로가 저의 단단했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여섯이 되었지요. 그렇게 선생님이 저희 가족 옆에 든든하게 계셔준 덕분에 돌쟁이 둘째를 두고도 셋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첫째 아이는 엄마의 부재를 느낄 틈 없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었으며,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저는 1살, 2살, 4살짜리 3형제를 함께 키웠습니다. 모르는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연년생에 아들 셋이 육아 난이도 최상이래!" 그 최상 난이도를 저희는 해내고 있네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먹여 키울 수 있었고, 선생님 덕분에 집에서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꿈을 꿀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온갖 오감놀이를 하며 한바탕 신나게 놀 때 선생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연 관찰에 흥미를 느낄 땐 아이들을 위해 한여름에도 저희는 채집도구와 채집통을 들고 곤충 탐험대가 되었고, 한겨울에는 꽁꽁 싸매고 집 앞 도서관에서 생물 도감을 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며 4남매를 멋지게 키우신 선생님의 육아 노하우도 배웠어요. 풍선아트, 전래놀이, 보육교사 경력까



지 다재다능하신 선생님 덕분에 3형제는 다양한 경험과 놀이로 건강하게 성장했고, 어디를 가든 선생님의 스펙이 곧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2026년 올해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 아이는 유치원에 입학하고, 막내는 어엿한 어린이집 5살 형님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파트타임으로만 조금씩 일을 하다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장맘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또한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데리러 와달라고 울던 둘째는 이제는 선생님과 더 놀고 싶다고 울지요. 말이 느려서 걱정이던 막내는 새 어린이집에서 단짝 친구도 생기고, 영어 동요를 부르고 다닐 정도로 좋아진 걸 보면 엄마의 모든 걱정은 기우였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 글을 쓰는 오늘의 일과 중에도 '우리 애들 하원 시간인데…'라는 생각이 든 순간, 어김없이 핸드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선생님 집 앞에서 아이들이 올챙이를 잡으며 노는 사진, 개미집을 관찰하는 사진, 도서관에서 책 보는 사진, 오늘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사진….

선생님은 아마 아시겠지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메시지를 보며 다시금 힘내서 일상을 지내는 요즘, 선생님을 통해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선생님께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송한 마음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난이도 최상' 육아의 힘듦을 알고 있기에 '선생님의 전문적인 역량과 따뜻한 돌봄 마음이면 다른 아이들을 더 힘들지 않게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 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어느 날 저녁, 선생님과 저희 아파트 앞 정문에서 부둥켜안고 철없이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항상 더 큰 배움과 사랑을 주셨어요. 단언컨대 저희 아이들과 가족을 이토록 큰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혹시라도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넷째를 갖는 일에 도전해서라도 선생님과의 인연을 이어갈 거랍니다.

선생님께 스승의 날이나 새해 첫날처럼 특별한 날에만 인사를 전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들은 선생님이 절반은 키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의 거울이라는 아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거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그 따뜻한 사랑을 보고 배우며 자라서 따뜻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인 저희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해도 항상 마음으로 느끼고 서로 통하는

우리 사이잖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가족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쉴 틈 없이 일해오신 선생님의 건강이 염려될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강건해 보이시지만 내면이 얼마나 한없이 부드럽고 약하신지 알기에, 항상 내 몸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 해주세요.

4년 동안 저희 가족의 아픔의 순간에 돌봐주시고, 기쁨의 순간에 함께 감동해주시고, 고민의 시간에 공감해주시고, 슬픔의 순간에 함께 눈물 흘려 주시던 선생님. 우리 가족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선생님.

선생님, 늘 저희 가족 옆에 계셔주셔서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희 가족과 건강하게 인연을 이어 나가요.

장려상

이용자 우수사례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다시 찾은 일상

조 지 연 | 서울특별시 양천구아이돌봄센터

이혼 후 32개월, 7개월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정착하게 된 보금자리에서 7개월간 혼자 고군분투했다. 육아 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직하게 되면서 어린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고 일, 육아, 집안일 등 모든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등급 판정 등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이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양천구 아이돌봄센터 사업담당자분들의 친절한 안내를 통해 좋은 돌봄 선생님을 연계받게 되었다.

처음 돌봄 선생님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아이들을 따뜻하고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아이들도 잘 따르는 모습을 보고 고립된 내 세상에서 든든한 아군을 만난 기분이었다. 선생님이 계신 덕분에 나는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없이 직장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었다. 퇴근길, 아이



들이 울고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뛰어 들어온 집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을 보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나에게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준 '디딤돌'이며 '사다리'였다.

엄마의 빈자리를 슬퍼할 줄 알았던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과 함께하며 정서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놀이 시간을 가지며 사회성을 배웠고, 안정적인 돌봄 속에서 선생님과의 헤어짐을 너무나도 아쉬워할 정도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몸소 체험하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2개월의 시간 동안 돌봄 선생님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주신 동반자였다. 때로는 친정 엄마처럼, 때로는 육아 선배처럼 건네주신 진심 어린 조언들은 홀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했던 내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듬어준 것은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나 역시 선생님의 온기 어린 돌봄 덕분에 인생의 가파른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시는 선생님은 육아 고민을 나눌 상대가 없던 내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인생 파트너가 되어주셨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며 가장 두려운 때가 바로 아이들이 아플 때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면 지지 체계가 무너지기 쉬워 항상 긴장하며 지내는데, 돌봄 선생님은 늘 우리 가정의 그림자까지 살피며 손을 내밀어주셨다. 서비스 연계가 없는 주말이나 연휴 때 아이들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새벽에라도 본인에게 연락하라고 하신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든든한 뒷배가 생긴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함께 병원에 갈 때도 선생님의 따뜻하고 기민한 대처 덕분에 우리 가족은 건강을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나에게 빈 도화지에 우리 가족 얼굴을 그려달라고 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의 얼굴을 그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돌봄 선생님도 그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도화지 한 장 가득 돌봄 선생님을 포함해 5명의 얼굴을 그린 적이 있다. 돌봄 선생님께 그림을 보여드리자 선생님께서도 감동받으셨는지 그 그림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하셨고, 나 역시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돌봄 선생님은 아이들과 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더욱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셨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었다면 나는 소중한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매일 밤 밀려오는 불안감에 잠을 설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이들에게 기꺼이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엄마로, 직장에서는 제 몫을 다하는 동료

로 1인 다역을 씩씩하게 해내고 있다.

돌봄 선생님은 우리 가정 전체를 다시 숨 쉬게 해준 진정한 서포터이고, 아이돌봄서비스는 나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준 선물이다. 내일을 꿈꾸며 수도권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에 도전하여 당첨되었을 때, 돌봄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축하 파티를 했다. 주택청약 당첨 지역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 지금의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어 선생님께 같이 이사 가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못 받게 될 때까지 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돌봄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고 싶다.

장려상

이용자 우수사례

육아는 버티는 일이 아니다

임 혜 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아이돌봄센터

'육아는 버티는 일이 아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내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다.

2025년 1월, 둘째 아이를 낳고 전남 구례로 이사를 왔다.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둘째와 낯선 어린이집에 적응하느라 예민해진 첫째를 돌보며, 아이 둘을 재우고 난 뒤 식은 밥을 서서 먹는 날도 많았다. 그러던 중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다문화가정이다.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가족도 많지 않아, 만삭이 되어가는 몸으로 어린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벅찼다.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다 쓰는 날이 이어졌다.

사실 첫째를 키울 때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개인적으로 육아도우미를 구했던 경험이 있다. 남편과 같은 국적인 모로코 출신 시터분이었는데, 돌봄에 대한 마음은 감사했지만 양육 방식과 생활 리듬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이웃 아이들을 돌봐주시던 돌봄 선생님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됐다.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얼른 신청해봐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 ○○○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

기어다니던 둘째는 이제 집 안을 뛰어다닌다.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선생님이 오신 줄 알고 현관 앞으로 달려가 기다리는 아이를 볼 때면,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가끔은 내 품에 있다가도 선생님이 오시면 곧장 달려가는 모습에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서운함보다 더 크게 다가온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이가 편안하게 웃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아이의 웃음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위로였다.

그제야 알게 됐다. 육아는 버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히 시간을 메워주는 지원이 아니었다. 특히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인 우리에게는 마음 놓고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준 든든한 안전망이었다.

아이가 영아에서 유아로 성장하는 시간을 함께 지켜봐주신 ○○○ 선생님 덕분에 나 역시 조금 더 웃으며 육아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 아이들의 돌봄일지를 쓰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다.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는데, 수기를 통해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육아가 혼자 견뎌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깨닫게 됐다. 누군가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만으로도 엄마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지금도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웃으며 현관 앞으로 달려가는 둘째를 보며 문득 생각한다.

'육아는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아이의 하루를 키워가는 일이다.'

장려상

이용자 우수사례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문수경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아이돌봄센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그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첫째를 출산하고 나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는 모두 사라지고 나에게는 나와 아이의 '생존'만 중요해졌다. 여유가 없었다. 남편과 나는 늦게 결혼했고, 출산도 늦어졌다. 다행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지만, 40대의 우리에게 일과 육아의 양립은 버거웠다.

좋은 아내는커녕 늘 남편과 다퉜고, 회사에서도 야근과 출장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늘 눈치가 보였다. 아이에게도 늘 날이 서 있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아이는 사랑스럽고 아이 키우는 과정도 행복한데 또 너무 힘들었다. 일과 육아에 지친 나와 남편은 결심했다.

'돈을 쓰자!'

남편과 나는 베이비시터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시터를 알아보기로 했다.

조건이 좋아보이는 시터들이 꽤 있었다. 망설이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결제했다. 조건이 좋은 선생님들은 모두 다른 일을 하고 계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시간을 낼 수 있었다. 10번이 넘는 구인 제안을 거절당한 후 겨우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었고 한동안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시터 선생님께서 아프셨고 돌봄이 중단되었다. 어쩔 수 없는 갑작스러운 통보였다. 대체 인력을 구하고자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무한 구인과 거절의 루프에 빠져버렸다. 이런 갑작스러운 공백에 베이비시터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책임도 도움도 주지 못했다. 오로지 엄마의 몫이었다.

결국 공백 기간 동안 친정 어머니가 직장에 연차를 내고 도와주셨다. 주변 사례를 들어보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람을 구하면 돌발 상황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육아는 돌발의 연속이 아닌가.

고민하다 알아보게 된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에 따라 이용 금액이 다르고 우리 역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용 금액이 높지 않아서 서비스의 질도 높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다. 이번에는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장 동료를 통해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안전'과 '위생'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친정 어머니도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나는 '공백 없는' 서비스를 받을 곳이 필요했다. 삼척시 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아이들의 연령대, 원하는 서비스 내용, 선생님의 자격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경력이 1년이 되지 않은 선생님을 배정받았다.

아이가 둘이고, 둘째 아이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선생님의 짧은 경력이

마음에 걸렸다. 아이돌봄센터 직원분께 이런 불안함을 이야기했고, 센터 직원분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이전 돌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라며 안심시켜주셨다. '충분한 교육'이라는 말에 신뢰를 갖고 배정된 선생님과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돌봄 날, 오시자마자 환복하고 앞치마와 마스크를 하신 선생님의 모습에 살짝 놀랐다. 이렇게 위생에 신경 써주시다니, 참 감사했다. 알고 보니 아이돌봄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위생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앞치마도 제공하고 있었다.

한 달 정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도 엄마인 나도 선생님의 돌봄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나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돌봄 선생님은 큰아이, 작은아이 가리지 않고 우리 집의 상황과 아이들의 컨디션에 맞추어서 돌봄을 진행해주셨다. 큰아이가 "오늘은 엄마랑 준비하고 싶어요."라 말하면 엄마와 첫째가 편하게 등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둘째를 돌봐주셨고, 둘째가 아픈 날에는 큰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등원 준비를 시켜주셨다. 한 달 정도 우리 가족의 루틴을 관찰하시고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난 아이에게 가글, 영양제 등을 챙겨주시고 세안 후 로션도 꼼꼼히 챙겨 발라주신다.

둘째를 낳고 나서 늘 걱정했던 첫째에 대한 양육 공백, 그리고 엄마인 내가 복직하고 나서 생길 양육 공백. 그 공백이 아이돌봄서비스로 촘촘히 메꿔지고 있었다. 걱정이 많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내가 아이돌봄사 선생님을 보면서 엄마인 나보다 잘 돌봐주신다고 느낄 때가 있을 만큼 말이다.

큰아이의 등원을 준비하면서 육아와 일에 지친 나는 빨리 보내려고 독촉만 해왔다. 아이돌봄사 선생님을 만나고는 큰 아이는 등원 전에 간단한 놀이 활동도 하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수다 삼매경에 빠진다. 진심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선생님과 아침을 준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아이가 행복해 보였고, 나 역시 행복했다. 아이가 둘인데 행복할 수 있다니. 복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니. 이런 행복함을 안고 아이 손을 잡고 등원과 출근길에 나서면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둘째는 나보다 더 잘 돌봐주실 돌봄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가볍다. 덜 지친 나는 차 안에서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웃어줄 수 있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참 좋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직장과 나의 일에 나눈다. 좋은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다.

아이돌봄사 선생님과 선생님의 생일, 아이의 생일을 서로 챙기며 축하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선생님의 케이크를 준비하면서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센터 직원분의 말을 믿고 배정받은 아이돌봄사 선생님을 바꾸지는 않은 것이 참 잘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아프거나 선생님이 아프셔도 대체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선생님이 아프셔서 양육 공백이 다시 생길까 걱정하거나,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날도 돌봄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프로답게 아이를 돌봐주시는 아이돌봄사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저렇게 빛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도 빛난다. 나 역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나도 빛나고 싶다. 잊고 있던 '좋은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되살아난다.

장려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너와 나 함께하는 성장 이야기

김강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며 느낀 보람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일을 넘어, 한 생명의 성장 과정을 함께한다는 데 있다.

결혼한 지는 9년차이지만 아이가 없어 실제로 아직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데도 아이돌봄사 일을 시작하자 주위에서는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냐?”, “하루 종일 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나 역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지만, 10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배우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내가 돌보는 아이는 5개월 무렵 처음 만나게 됐다. 아직 너무 작고 여린 아이였기에 처음에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러웠다. 수유 시간과 낮잠 시간, 기저귀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아이의 생활 리듬을 익혀갔고,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늘 따뜻한 목소리와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의 하루와 성장 과정 속에 자연스레 내 삶이 스며들게 됐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난다. 분명 5개월 아이라 했는데 어찌나 건장한지 체감상 10개월 정도 된 아이처럼 보였다. 아직 낯을 가릴 때가 아니라 울진 않았지만 한동안 빤히 멀뚱멀뚱 바라만 보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를 보고 온몸으로 반겨주고 예쁘게 웃으며 품에 안겨 안정감을 표현하며 만족감을 보일 때 큰 감동을 느꼈다.

특히 하루하루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뒤집기를 성공하던 순간, 이유식을 처음 먹던 날, 다양한 옹알이를 하던 날, 엉금엉금 겨우 기어다니기를 성공하던 날, 치아가 나던 날,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다. 최근에는 스스로 서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두 손 잡고 걸음마를 연습하다가 이제는 한 손만 잡고도 걸음마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 만날 때 겨우 5개월이던 작은 아이가 어느덧 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를 돌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안전’과 ‘정서적인 안정감’이었다. 아이가 하루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많이 안아주고 눈을 맞추며 반응해주려 했고,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시기이기에 아이의 표정과 작은 행동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아이와 자연스럽게 신뢰와 애착이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아이의 컨디션과 하루 일과를 세심하게 전



달하려고 노력했다. 이용자가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았고, “아이를 진심으로 예뻐하시는 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들었을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고 걱정을 나눈 과정 속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가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 나는 아이가 없다. 하지만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면서 더욱 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돌봄의 가치를 깊이 배우고 있다. 누군가가 소중한 아이를 믿고 맡겨준다는 것에 늘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며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사가 되고 싶다.

장려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나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가족

박 연 단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아이돌봄센터

나는 중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다. 처음 아이돌봄사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솔직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 다른 일을 병행하며 조금이라도 수입을 보태고 싶었고,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작은 떡값 같은 것도 기대하며 시작한 일이었다. 그저 일이라 생각하고 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작이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아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부담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특히 나처럼 낯선 환경 속에서 주변의 도움 없이 모든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몸과 마음이 늘 지칠 수밖에 없다.

내가 처음 배정받은 가정 역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이었다. 아이를 처음 만났던 시간은 조심스러웠지만, 하루 이틀 함께 보내며 우리는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아이의 웃음과 작은 손길,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모습은 점점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이용자 가정과의 관계

가 깊어지면서 육아 방식과 아이를 대하는 생각이 서로 많이 닮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아이를 이해하는 태도까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용자'라는 말보다 '가족'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고 느끼게 됐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나에게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다시 한번 엄마로서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모성애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변화는 내 삶에도 이어졌다. 결혼 후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둘째를 갖는 일에 대한 기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다시금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그 따뜻한 마음은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첫 아이 출산 후 12년 만에 둘째 딸을 품게 되었다.

첫 아이를 키울 때와는 전혀 다른 육아가 시작됐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에 육아가 힘들고 버겁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에 찾아왔다. 첫째 때는 지치고 힘들어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둘째를 키우는 지금은 그런 힘듦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돌봄사인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나는 아이돌봄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일이자 한 가정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역할이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동시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기로 한 나의 작은 선택은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고,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며 그들의 성장에 따뜻한 힘이 되어주는 아이돌봄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도움과 위로를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아이돌봄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장려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장애를 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

김선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아이돌봄센터

나는 지금 16년째 아이돌봄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어린이집에서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내 삶의 대부분은 늘 아이들과 함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다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긴 시간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며 깨닫게 된 것은, 아이를 돌본다는 일은 단순히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아이돌봄사 활동을 하며 수많은 가정과 인연을 맺었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 깊이 남아 있는 한 남매 가정이 있다.

그 가정의 첫째 아이는 장애가 있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하고 계셨지만 현실은 늘 쉽지 않았다. 병원 치료와 재활, 학교생활까지 모든 일상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은 늘 지쳐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의 관심은 첫째 아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둘째 아이가 있었다.



둘째 아이가 세 살 무렵일 때 처음 만났다. 작고 여린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따라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애교가 많고 밝게 웃는 아이였지만, 한편으로는 늘 마음속에 외로움을 안고 있는 아이이기도 했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놀던 중, 아이가 무심코 말했다.

"엄마는 맨날 오빠만 챙겨."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린아이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둘째 아이를 더 세심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돌봄 시간만큼은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아이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그랬구나!", "정말 멋지다!" 하며 아이 마음에 반응해주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관심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따뜻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흐른다. 세 살이던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어느새 나보다 더 큰 아가씨로 자랐다. 처음 생리를 시작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참 묘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따라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긴 시간을 함께해 왔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돌봄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시간이 끝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먹먹하다. 아이의 성장이라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한 아이와 멀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나는 믿고 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을 품고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돌봄이라는 것은 아이를 붙잡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가질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지만, 아이돌봄사 활동은 또 다른 배움을 주었다. 가정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의 삶과 아이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서 돌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장애





가 있는 아이와 가족들을 만나며 장애를 바라보는 내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장애를 단지 불편함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가족들은 단순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존재들을 보게 됐다. 바로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들이다. 이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많은 것을 이해하고 참아낸다. 부모님의 관심이 형제에게 더 많이 쏠리는 것을 알면서도 투정하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스스로 마음을 접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장애아동 돌봄만큼이나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돌봄은 단순히 아이 곁에 있어주는 일이 아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고, 말하지 못하는 감정까지 살펴주는 일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함께 안아주는 일이기도 하다. 16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며 나 역시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결과와 책임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은 기다림과 공감의 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 아이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

르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아이들을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아이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며,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봐주길 바라고 있다.

가끔은 돌봄 일을 하며 지치고 힘든 날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 한 번,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다시 힘을 내게 한다. 누군가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아이의 마음 한편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돌봄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가족의 삶을 함께 버텨주는 '동행자'에 더 가깝다고 본다.

앞으로도 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아이돌봄사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돌봄 노동의 가치 역시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내는 이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결국 아이들만 성장한 시간이 아니었다. 나 역시 아이들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며 성장해왔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의미를 다시 배우기 위해.

장려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제가 선생님을 지켜줄게요

성희남 | 부산광역시 서구아이돌봄센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자식이자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꼽는다면 아이를 낳고 기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는 아이가 성장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쁜 현대 사회, 특히 맞벌이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돌봄의 공백 속에서 돌봄 선생님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 공백을 채우는 데 있어 돌봄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에 오늘도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를 돌보며 최선을 다한다.

아이돌봄사들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안정된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특히 매년 진행되는 보수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 부모 다음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 타인이 돌봄 선생님이 될 가능성도 크다. 나는 아이가 가족과의 익숙한 소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



과의 관계에 자연스럽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를 맡게 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된다.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아이를 돌보고 살피며 신체건강과 정서발달에 최선을 다한다.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가 내 품에서 잠들고, 낯설던 눈빛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순간을 지켜볼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된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정성껏 채워간다. 아이돌봄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솔직히 내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까지 잘하지 못했는데' 하는 아쉬움이다. 지금처럼 더 많은 것을 알고 공부하며 키웠더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지금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는 내 안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랑과 배움을 아낌없이 쏟고 싶다.

나는 아이와 소통할 때마다 "선생님이 우리 ○○를 항상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라고 말하며 신뢰를 쌓고자 한다. 아이가 그 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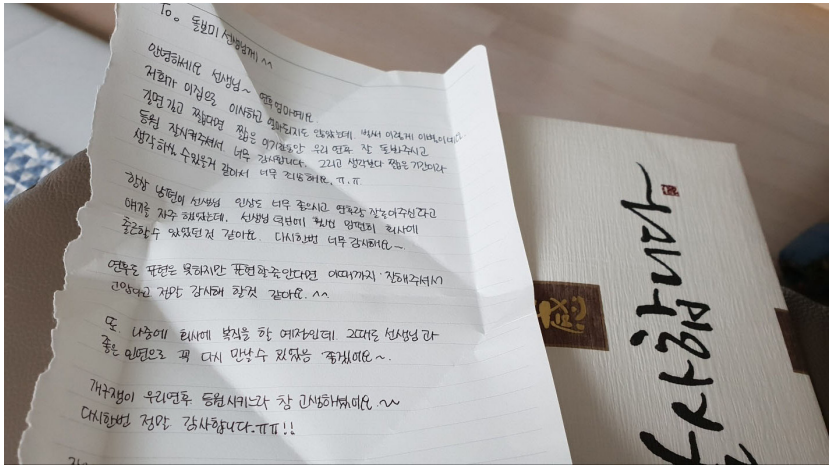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좁고 어두운 지하 주차장을 지나가게 됐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선생님은 이런 곳이 조금 무서워. 길도 좁고 어두우니까 ○○도 항상 조심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네 살 아이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제가 선생님을 지켜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아이에게 말해왔던 '지켜주겠다'는 말과 마음이 어느새 아이 안에 자리 잡아 다시 내게 돌아온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돌봄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이의 말과 태도, 그리고 마음까지 형성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렇기에 오늘도 아이를 내 아이처럼 대하며, 내가 보이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아이가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용자님이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써주신 손편지를 받을 때면 이 일을 하는 보람과 감동을 더 크게 느끼며 아이돌봄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돌봄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미숙함으로 인해 실수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민한 기질의 아이를 돌볼 때, 나처럼 꼼꼼하고 느긋한 성격은 아이를 기다리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돌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사랑과 정성으로 돌봄 활동을 하고 계실 것이다. 소중한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신 만큼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실력을 갖추고 노하우를 쌓아 성실히 돌봐야겠다 다짐한다. 아이돌봄은 나 자신을 더욱 가치있게 성장시켜주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되면서 책임감과 자신감도 함께 커졌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한 아이의 하루와 마음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변화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는 시간 속에 내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이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함께 하는 돌봄 선생님이 될 것이다.

장려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내 이름은 '아줌마'가 아니라 '아이돌봄사'랍니다

정 음 미 | 경상남도 하동군아이돌봄센터

나는 20년차 직장인이다.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내가 처음 아이돌봄사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이돌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문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잠깐 애 봐주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섭섭하기도 했다. 나는 직장인으로서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하고 격려했다.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또 얼마나 뿌듯한지!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어본다.

" 아이 봐주면 얼마나 벌어요?"

"남의 애를 봐주고 얼마나 벌겠어요? 자기 애는 자기가 키워야 하는데…."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대답한다. 내가 일하는 대가로 우리 가정의 생활비를 벌 수 있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고, 심지어 가족 여행도 갈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직장생활

과 다를 게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집에서 놀면서 그냥 이웃집 아이를 잠깐씩 거두어주는 사람', '아이 돌보는 아줌마'가 아니라 당당한 직장인, '아이돌봄사'로서의 삶을 나는 사랑한다. 지금은 예전보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 '아이돌봄사'라는 직업이 괜찮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도 돌봐주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하며 부러워한다. 나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아이를 좋아한다. 천진무구하고 천사 같은 아이의 눈빛을 사랑한다. 아이는 누구의 아이든 다 사랑스럽다. 그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어느새 20년이 다 되어간다. 내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또 고등학교를 갔다. 길에서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엄마!" 하는 아이들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남편이 암 투병 중일 때도 내게 온 아이에게서 위로를 받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이가 있어 견뎌낼 수 있었다. 내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경제력을 주고,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도감도 준다. 세상살이가 무척 어렵다는 요즘도 나는 큰 흔들림 없이 살고 있다. 내 일이, 내 직장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 덕분이다.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알아봐준다. 아이가 자라 부모님의 힘만으로 육아가 가능해지면 나는 그 가정을 떠나야 한다. 그때의 이별은 예견되어 있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슬픈 건 어쩔 수 없다. 한동안 서로를 잊지 못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일을 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지금도 헤어지는 일은 여전히 힘들고 슬프다.

아이돌봄사업은 출생률이 낮은 지금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육아 부담 때문에 아기 낳기를 꺼리거나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에게 이 사업을 널리 알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면 좋겠다. 우리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좋다는 이야기도 꼭 해주고 싶다. 또한 별다른 기술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주부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가슴에 따뜻한 사랑만 간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직업이 있다고 널리 알리고 싶다.

내 주변에는 나로 인하여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가까운 친척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하는 일에 적극 찬성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이를 돌보다 보면 그 가정과 우리 가정이 한 가족이 된 듯하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돌보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한다. 우리 딸아이는 내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느라 용돈을 다 써버리기도 했다. 길을 가다가도 예쁜 물건이 있으면 아이들이 생각난다고 하니 가족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나는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단정하고 말쑥한 차림새로 집을 나선다. 나는 직장인이니까.

장려상

아이돌봄사 우수사례

현모양처에서 아이돌보미 그리고 아이돌봄사가 되기까지

황명주 | 경상북도 경산시아이돌봄센터

작년 가을 청룡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가수와 배우가 있다. 사랑하던 연인이 이별 앞에서 '좋은 안녕'을 한다는 가수 화사의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연인으로 나온 박정민 배우가 그 주인공이다. 'Good Goodbye' 노래 제목을 듣고 처음에는 생소한 말이라 의아했다. 하지만 좋은 만남이었으니 헤어질 때도 좋게 헤어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이돌봄 활동을 비롯해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남 끝에는 헤어짐이 있듯이 아이돌봄사 또한 이용가정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 온다. 2015년 10월 입사 이후 지금까지 여덟 가정과 매칭이 되었고 그중 여섯 가정과는 '좋은 안녕'을 했다. 지금은 2019년 12월에 매칭된 가정과 2024년 3월에 매칭된 가정의 돌봄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매일의 헤어짐 앞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낸 후 퇴근한 엄마, 아빠 품에서 행복한 웃음을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좋은 안녕'을 다짐하는 나는 11년차 경산시아이돌봄센터의 아이돌봄사 황명주다.

결혼 전 학습지 교사를 했던 나는 현모양처를 꿈꾸며 결혼과 동시에 경단녀가 됐다. 주말부부였던 나는 어린 남매를 돌보다가 하루가 다 가는 가정주부의 삶에 만족했다. 아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며 죄책감을 토로하는 직장맘 친구의 하소연을 듣고 가정주부인 나는 언제나 아이들 곁에 있어줄 수 있음을 다행이라 여기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주변 학부모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렇게 아이들은 가정주부인 나의 돌봄과 보살핌 속에 사춘기가 되고 중학생이 됐다. 나와 같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 공부 걱정과 학원 정보를 공유하던 학부모들은 하나 둘 직장맘이 되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무언가 해봐야겠다고 주변을 살피던 즈음 '아이돌봄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종일 얽매여 있는 일도 아니고 몇 시간만 아이를 돌봐주는데 큰 벌이는 안 되지만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고, 따라오는 보람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이다.

경력이라고는 결혼 전 학습지 교사가 전부였던 나는 집집이 방문해 학습지도를 하던 경험을 떠올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내서 경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5년 당시, 現 경산시아이돌봄센터)에 지원했다.

가정주부였던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가족과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돌봄사 일을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된 건 다름 아닌 가족과 친구들이었다.

남편은 "4년제 대학을 나온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냐?"는 식이었고 사춘기인 아이들은 "남의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될 엄마가 부끄럽다"는 반응이었다. 친구는 보다 건설적인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했다. 물론

당시엔 아이돌봄사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낮았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아이돌봄사에 지원했고, 합격한 뒤 양성교육과 실습을 거쳐 2015년 11월 아이돌봄사 인생의 첫 돌봄 아동인 4세의 ○○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마흔다섯 살이었다.



집 근처로 배정받은 나는 맞벌이 가정의 외아들인 ○○이가 부모님의 부재로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안전한 돌봄, 즐거운 돌봄의 시간을 보내고 녹초가 되면서도 23개월 동안 보람된 돌봄을 하게 됐다. 노래방에서 두세 시간 노래를 불러도 아무렇지 않던 나였는데 다양한 목소리로 그림책 읽기와 역할놀이를 하다가 생애 처음으로 성대결절로 고생하기도 했다.

아이돌봄사 일을 시작하고 3개월 후에는 남편의 스파르타식 운전 연수에 힘입어 당당히 운전도 하게 됐다.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 돌봄을 다니는 내가 안쓰러웠던 남편의 적극적인 운전 권유 덕분이었다. 서른 아홉에 면허를 딴 뒤 지갑 속 신분증으로만 꽂혀 있던 운전면허증이 마침내 제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월급을 모아 인생 첫 차를 사고 더 많은 가정에 가서 다양한 이용자와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 ○○이 다음으로 40개월 동안 아침 등원 돌봄을 했던 정 많은 연년생 자매, 49개월 동안 참 많이도 만들고 그리는 놀이를 했던 아동, 힘든 코로나 시기에 34개월 동안 함께했던 연년생 남매, 15개월의 인연이었지만 나와 함께했던 때가 그립다며 지금도 연락하는 사랑스러운 연년생 자매, 대구로 이사 가서 12개월의 짧은 인연으로 마무리된 눈이 너무나 예뻤던 연년생 자매...

모두 내 인생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 초반까지의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은 아이들이다. 하나같이 참 좋은 인연이었고 그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다.

2026년 5월 지금은 2024년 3월부터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남매가 있고, 2019년 12월부터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귀엽고 착한 자매도 있다.

돌봄 경력 10년을 되짚어보니 내가 인연을 맺은 가정은 모두 맞벌이에 쌍

둥이보다 키우기 힘들다는 연년생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가정에 아이돌봄사로 매칭되어 육아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돌봄 가정 이용자와는 육아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귀 기울여 듣고, 앞으로의 육아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과는 눈높이에 맞게 따스한 눈길과 손길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갖게 되는 가족 이상의 공감대, 그리고 서로 당연시하지 않는 감사의 마음이 모여 참 좋은 인연을 만들었다.

돌봄이 종료된 가정의 아이들과 만나지 않아도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며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하며 내 품과 손길을 거쳐간 많은 아이들을 추억하며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고 축복해줄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세상이다.

2019년 12월 매칭이 되어 돌봄 시작 당시 5개월의 아기천사였던 △△이의 취학통지서가 나왔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훌쩍 자란 다원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자라서 초등학교에 가나 싶어서 너무 빨리 자라는 게 아쉽고 서운하기도 한 눈물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선생님, 돌봄 선생님!" 하고 불러주면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먼 훗날 아이들이 나를 떠올릴 때 엄마, 아빠 말고도 참 좋은 따뜻한 어른이 곁에 있었다고 추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좋은 돌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2015년 10월에 입사하여 열정과 끈기로 일하다 보니 2026년 5월, 11년차 아이돌봄사로서 돌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10년은 더 활동할 생각이다.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이돌봄사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되었고, 더디지만 처우도 좋아지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올해 4월 23일부터는 국가자격제가 시행되어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가 됐다. 너무나 뿌듯하여 가족들과 친구들, 이용가정에 국가자격증을 자랑했다. "저는 아이돌봄사 황명주입니다."라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보란 듯이 올려두었다.

돌이켜보면 내세울 만한 자격증 하나 없었던 내가 경단녀의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날갯짓을 할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아이돌봄 일이었다. 2015년 10월 주변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돌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때의 나를 칭찬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돌봄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히 권유한다. 아이돌봄사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돌보고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나는 오늘도 만나게 될 아이들을 위해 거울 앞에서 활짝 미소 지어 본다. 내가 웃으며 팔을 벌리면 아이들도 천진한 웃음을 지으며 내게 안기고, 손을 내밀면 앙증맞은 손으로 꼭 잡아줄 것이다.

나를 설레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예쁜 천사들, 오늘도 선생님이랑 잘 지내다가 '좋은 안녕'을 하도록 하자!

장려상

사업담당자 우수사례

따뜻한 연결, 사례관리자가 만난 아이돌봄의 가치

윤지은 | 서울특별시 강동구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보직이 신설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어느새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사례관리 업무를 하며 가장 많이 접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용 가정과 돌봄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아이돌봄서비스가 한 가정의 일상과 삶을 단단하게 연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다.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에 이용 가정과의 전화 모니터링으로 아이와 선생님의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전화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돌봄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정해진 항목 외에 추가 질문을 드리곤 했다.

"돌봄 선생님의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셨는지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사례는 다른 선생님들과도 공유하여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은 돌봄 선생님에 대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돌봄 선생님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돌봐주셔서 서비스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돌봄 선생님을 잘 따르고 좋아하며 관계가 매우 좋아 보여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돌봄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뻐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돌봄 선생님이 아이 특성에 맞는 놀이 활동을 계획해 오셔서 함께 놀아주시니 제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주고 계세요."

"아이의 연령, 성향, 컨디션에 맞춰 활동해주셔서 아이가 잘 크고 있어요."

"아이에게 질문과 설명을 많이 해주시며 상호작용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출근할 때 정신이 없는데도 항상 시간 약속을 잘 지켜 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시는 돌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됐다. 전화 너머로도 돌봄 선생님들의 수고와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움이 남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과 선생님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낼까?' 하는 궁금증이 커졌다.

마침내 코로나19가 잦아들고, 2024년부터는 아이돌봄센터에서도 현장 모니터링을 하게 됐다. 처음 현장 모니터링을 나가던 날은 긴장과 기대가 공존했다. 낯선 방문에 아이가 불편해할까 걱정하며 이용 가정을 찾아갔다.

방문 당시 아이는 점심을 먹고 있었다. 돌봄 선생님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아이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분위기를 안

정시켜 주셨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돌봄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과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장 모니터링을 다니며 기억에 남는 가정이 많다. 그중 한 곳은 2년 이상 같은 돌봄 선생님과 인연을 이어온 가정이었다. 방문했을 때 돌봄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한글과 숫자를 익히는 놀이를 하고 계셨다. 장롱에는 종이판으로 글자를 가려두고, 색깔 종이컵에는 숫자와 한글을 붙여 아이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셨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그 모든 교구를 돌봄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다. 아이는 공부를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한글과 숫자를 익히고 있었다. 교구 하나하나에 담긴 돌봄 선생님의 정성과 아이를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모니터링을 마칠 무렵, 재택근무 중이던 이용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이 직접 놀잇감까지 만들어 오셔서 상호작용을 참 잘해주시네요."

"맞아요. 선생님이 저보다 더 즐겁게 아이와 놀며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못 보는 시간에 이렇게 사진을 남겨주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며 성장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경력 단절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답니다."

이용자가 환하게 웃으며 하는 말을 들은 순간, 아이돌봄서비스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한 가정의 일상과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최근 방문했던 다자녀 가정도 기억에 남는다. 돌봄 선생님은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 읽기와 소리의 전달 원리를 배우는 놀이를 진행하고 계셨다. 처음에는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들도 돌봄 선생님의 능숙한 상호작용에 금세 몰입했고, 실과 종이컵을 활용한 놀이에 즐겁게 참여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돌봄 선생님의 정성과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 넷을 돌봐주실 선생님을 오래 기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도 많이 읽어주고 다양한 놀이도 해주기 어려웠을 거예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던 이용자의 모습에 아이돌봄센터로 돌아오는 동안 내 마음도 따뜻했다.

현장 모니터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치와 돌봄 선생님들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돌봄 선생님들의 손길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힘이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

물론 사례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이용자와 돌봄 선생님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중재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도 많다. 때로는 격앙된 감정으로 걸려온 전화에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지치는 날도 있다.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가정과 돌봄 선생님들의 따뜻한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다.

나는 앞으로도 돌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정과 그 마음을 전하는 돌봄 선생님들을 연결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많은 가정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진심을 다하며 '따뜻한 연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장려상

사업담당자 우수사례

우리의 돌봄꽃

김 미 경 | 경기도 고양시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어느새 10년째 담당하고 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가정과 다양한 순간들을 마주해 왔다. 그중에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 서로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마다 '돌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던 기억들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이 꼭 필요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다. 그 말이 유난히 무겁게 다가온 날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아이돌봄센터로 찾아왔다. 연세가 지극한 할아버지였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순간부터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다급한 몸짓이었지만 결코 화를 내시지 않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딸이 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 아내가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손주들을 돌봐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딸은 곧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데 맡길 곳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르신은 결국 눈시울을 붉혔고, 안타까운 가족의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동안은 가족이 돌봄을 이어왔지만 그 연결이 갑자기 끊어진 것이다.

그날 나는 단순히 서비스를 안내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가족이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 가정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능한 일정과 조건을 조율해 돌봄이 가능한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가정은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단순히 아이돌봄사와 아동을 매칭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기억에 남는 이용자가 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아이돌봄센터를 찾아왔다. 부부는 이미 표정에서부터 불만이 가득했고 잔뜩 경직된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하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부부는 아이돌봄사의 말투, 태도, 사소한 행동까지 하나하나 문제로 지적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하기보다는 우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부는 강경한 태도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30분쯤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아내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상황의 본질이 드러났다. 부부관계의 갈등, 아내의 복직 이후 회사 적응의 어려움, 육아와 일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 그 모든 복합

적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크고 작은 아쉬운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 이후의 상담은 문제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상황을 함께 정리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조율해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1시간 정도의 상담이 끝났을 때, 처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격앙되었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목소리도 차분해졌다. 부부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방법을 찾아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민원인은 다른 행정민원과 다르다. 젊은 부부가 일과 양육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겪는 여정을 함께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그들의 일상이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닌,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느낀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돌봄사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분은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사 선생님이었다.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일과 양육을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늘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말수가 적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돌봄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아이가 처음으로 신체의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이돌봄사는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한 뒤, 함께 필요한 물품을 사러 나갔다. 그러고는 여느 가정집처럼 첫 변화에 대한 작은 파티를 열어 축하해주었다.

타인에게 곁을 주지 않던 사춘기 여자아이는 아이돌봄사에게 자신의 비밀 이야기까지 하면서 재잘거리는 밝은 여학생이 되었다. 아버지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순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을 채워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돌봄사는 사랑이 충만한 따뜻한 어른이자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는 전문가이며 한 가정이 오롯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날에는 조용히 일상을 돕는 일이고, 어떤 날에는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이어주는 일이며, 또 어떤 날에는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일이다.

긴 시간이 흘러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고귀한 가치는 오래도록 남아 나의 마음속은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와 아이돌봄사의 마음속에도 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정성어린 돌봄은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씨앗이 되어,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운 '돌봄꽃'을 피워낸다.

장려상

사업담당자 우수사례

초보 종사자의 모니터에 봄이 피었습니다

윤 희 진 | 대구광역시 중구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몇 달 전, 입사 축하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에게 나는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양육 공백이 생기는 부모님과 활동을 희망하는 선생님을 매칭해 주는 곳이라고 조금은 건조하게 설명했을 뿐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내게 이 일은 거창한 사명감이나 보람보다는 쏟아지는 서류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을 버텨내야 하는 직장 생활일 뿐이었다. 배경지식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문의에 진땀을 흘리기 일쑤였고, 돌봄 선생님과 이용자 가정 사이에서 얽힌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퇴근길 버스에서 녹초가 되어 눈을 감기 일쑤였다. 모니터 속 화면은 오늘 해치워야 할 업무로만 보였고 "선생님, 연계 언제 되나요?"라는 부모님들의 독촉 전화는 버겁게만 느껴졌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사유할 여유조차 없었던, 서툰 초보 종사자였다.

그렇게 매일 걸려오는 전화를 처리하는 것에 급급하던 내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소소한 이벤트 덕분이었다.

이벤트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들로부터 돌봄 선생님에 대한 '칭찬 릴레이' 글과 함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있는 사진을 접수하는 것이었다. 업무가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살짝 한숨을 쉬며 제출된 내용을 보았다. 그런데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온기였다.

"어린이집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엄마가 아니라 돌봄 선생님한테 먼저 주더라고요. 질투가 나기보다 평소에 선생님이 아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는지, 감사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벌이라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설 때면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못해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신 뒤로는 아이가 울지 않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줍니다. 제 출근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용자분들이 정성스럽게 적어 보내온 글을 읽어 내려가다 함께 첨부된 사진들을 보았을 때, 나는 마우스 휠을 멈추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돌봄 선생님은 아침 출근길 현관문 앞에 서서 출근하는 어머니를 향해 아이의 작은 손을 함께 잡고 흔들어주고 계셨다. 또 다른 사진 속 아

이는 선생님의 등에 찰싹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심 어린 평온함이 묻어나는 모습들이었다.

그 사진들을 보는데 문득 내 유년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맞벌이로 늘 바쁘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나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할 무렵,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텅 빈 집은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나를 기다려주던 할머니의 품이 있었기에 외로움을 모르고 자랐다. 내 기억 속 가장 안전하고 따뜻했던 그 공간과 공기가 지금 내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사진 속 아이들의 미소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아, 내가 매일 모니터로 보던 대기자 명단과 연계 데이터가 단순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기계적으로 조율하고 연결했던 그 수많은 전화 통화들은 어쩌면 어린 날의 나처럼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을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터에서 시계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부모들에게는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일이었다.

철없던 초보 종사자의 눈에 그제야 업무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서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이 마치 나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몽글몽글하면서도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왔다.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짜 직원이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한 깊은 뿌듯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 순간이었다.

이제 나는 아침에 출근해 수화기를 들 때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까다로운 조건에 매칭이 어려워 난항을 겪을 때도 예전처럼 쉽게 지치기보다 '내가 오늘 이 가정을 연결하면, 또 한 명의 아이가 따뜻한 오후를 보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한다. 돌봄 선생님들을 대할 때에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채워주시는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에 목소리에 진정성과 존경을 담게 된다.

여전히 나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1년차 미만의 서툰 종사자다. 매일이 완벽할 순 없고, 가끔은 지치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이번 가정의 달 이벤트로 전해 받았던 사진 속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려 한다.

이제는 이 기관의 일원으로 수많은 가정에 그 따뜻한 기억과 행복을 배달하는 '배달부'가 되고 싶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문을 열고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가 외롭지 않은 사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든다.

장려상

사업담당자 우수사례

돌봄을 잇는 사람, 그 사이에서 피어난 성장

박 영 미 | 울산광역시 중구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게 된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한 20대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적도 없는 내가 이용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야 했고,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돌봄 선생님들께 연계를 권유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전화를 한 통 한 통 직접 받아 상담해야 했고, CS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미납금 처리나 이용자의 불만 대응에도 서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세대 차이가 나는 돌봄 선생님들의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도 쉽지 않았다.

선생님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건 돌봄사 집담회를 통해서였다. 선생님들은 먼저 다가와 엄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며 "잘하고 있 다"는 칭찬을 건네주셨고, 활동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집에서 천연 재료로 반 죽을 만들어 촉감놀이를 준비해간 이야기, 장난감을 아이돌봄센터에서 빌려 챙겨간 이야기,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 이용자와 함께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고민한 이야기 등 여러 선생님들의 활동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도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친손주처럼 돌볼 수 있는 걸까 생각하다 깨달았다. 선생님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그 이후로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선생님은 입사 후 첫 월급을 받아 아이돌봄센터에 빵을 사오시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일해서 번 돈이라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서 나누고 싶다고 하셨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이용자뿐 아니라 돌봄 선생님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일이었다.

업무를 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가정도 있다. 한부모 가정으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홀로 돌보고 있던 부자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출근해 아이들이 잘 시간에야 돌아오는 탓에 아이들 식사 준비조차 어려워 보였다. 연계된 돌봄 선생님께서 반찬을 직접 준비해 가고, 등교시에는 학교 선생님과도 상담을 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넘는 행동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도움에 깊이 감사한다고 하셨다.

"이혼 후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위로가 되고 아이들도 많이 안정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순간, 나는 단지 한 분의 돌봄 선생님을 연계했을 뿐인데 이용자에게는 한 가정의 빈자리를 채우고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적이 없어 공감하기 어렵다 생각했던 내가 점차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어느 날은 한 이용자가 전화를 해 "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아이돌봄센터에 이용자가 방문하는 일은 흔치 않아 어떤 일로 오시는 걸까

긴장하며 기다렸는데 떡을 들고 돌봄 선생님과 함께 오셔서 말씀하셨다.

"간 기능이 좋지 않아 피로가 쉽게 쌓여 아이 둘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선생님을 연결해줘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 동안 쉴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응대에 감사드려요."

실제로 애를 써주신 건 돌봄 선생님들이었지만 이용자의 한 마디에 내 마음은 감사함과 보람으로 가득 찼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초심을 떠올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내 주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CCTV를 설치해야 할 것 같다"며, "돌봄사를 믿기 어렵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꼭 이 말을 한다. 내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꼭 이용할 거라고. 나보다 돌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 잘 돌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돌봄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계심을 깊이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 엄마도 아이돌봄사 일을 하고 계신다. 하시던 일을 그만두며 갱년기 시기가 겹쳐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제안했다. 엄마는 내가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밝아지셨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며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신다. 힘들어하던 갱년기가 언제 왔다가 갔는지 모를 정도로 어느 틈에 지나갔다. 엄마뿐 아니라 돌봄 선생님들만 봐도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들을 접할 일이 없어지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다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때가 늘어난다고 말씀해주셨다.

처음에 어렵기만 했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8년차가 된 지금의 나에게는 크나큰 인생 공부가 되었다. 이용자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돌봄 선생님들의 인생 경험과 활동을 통해 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었다. 이보다 더 값진 경험이 또 어디 있을까!

2026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박구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1층
전화	02-3479-7600
홈페이지	www.kihf.or.kr
기획·편집	아이돌봄사업부(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